A Church's Approach to Gender Equality:

Developing a Gender-Equal Korean Bible Study Curriculum

성평등을 이루는 교회의 모색:

성평등적 교재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Jinyoung Lee

May 2017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Jinyoung Lee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Namsoon Kang, Chairperson

K. Samuel Lee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7

ABSTRACT

A Church's Approach to Gender Equality: Developing a Guidebook for Gender Equality

By

Jinyoung Lee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create a church of gender equality through transforming gender-biased theology within the church. For this purpose, I designed a guidebook to instill ideas of gender equality by focusing on Jesus and his encounters with women in the New Testament. I chose these particular stories in order to shed light on Jesus's understanding of women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patriarchal understandings of scripture.

This study reveals the seriousness of gender issues within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including Korean Christians'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toward Christian feminism and the ways patriarchal and masculine perceptions are evident within the church. I also analyze women's perceptions of gender equality and provide direction for improvement. I discuss how the church community as a whole is impacted when ministers in the church use the guidebook I created, since it is particularly designed to enhance gender equality. I also believe that women need to acknowledge and give voice to themselves in order to realize church communities that respect both females and males.

Key words: gender discrimination, gender bias, patriarchal system, gender equality in churches, guidebook for gender equality

SUMMARY

This project focused on designing a guidebook intended to promote a sense of gender equality that could be used in the church. While it may be argued that current Korean society has achieved a fair amount of gender equality, and that the society is becoming women-oriented, the reality is that it has not.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s still prevalent in the society at large, as is wage disparity. In 2016, South Korea ranked the lowest of thirty OECD countries on the glass-ceiling index. Korean churches are not an exception to this pattern of gender discrimination.

When people think of the word church, the image that is often associated with it is an egalitarian community. This is because the spirit that Jesus embodies in the New Testament is one of equality. However, the reality in the Korean church is not one of equality. The Korean church is part of Korean society. That is, the members of the church are members of the society, and thus the Korean church cannot be free from the influence of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the church reflects the gender inequality of the society at large. In Korean Christianity, important church conferences, such as the General Assembly, are male dominated. Recently, a few voices were raised to increase the membership of women in the General Assembly, but, due to the legislative process, the ratio of males to females in the General Assembly is still large. This tendency is manifested in individual churches as well.

This project shows the gap between expectations for males and females in the church through the issue of voluntary kitchen work. Men perceived that voluntary

kitchen work is what women ought to do. Surprisingly, most of the women also perceived that it is their job to do voluntary kitchen work. Moreover, some of the women believed that doing kitchen work is a distinctive tradition and characteristic of their church. This demonstrates that people in the church, both women and men, do not realize the importance of gender issues and their seriousness.

This project is based on the idea that gender inequality within the church is due to traditional patriarchal interpretations of the scripture and misunderstandings of feminism. That is, the Korean church and Korean society, including women, conceive of feminism as the resistance of strong women toward men. Of course, this kind of dichotomous thinking—women taking a stance against men—is found in the early feminist movement. However, feminism in the modern world no longer focuses on the dualism between women and men. It aims to go beyond this dichotomous thinking and resist along with society's minorities all oppression based on gender, sex, class, race, and religion.

The ideas that Jesus conveyed were based on a humanist feminism that goes beyond what feminism has simply meant. Humanist feminists believe that women and men are both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ey understand that both women and men are equal, and they promote self-development through intellectual activity. In such an understanding, women and men are both pursuing the good, rather than being differentiated. In this vein, the dichotomous thinking of women's versus men's culture or the superiority of women's experience versus the inferiority of men's experience is no longer meaningful. These controversies disregard what Jesus preached. Through understanding Jesus, the church must revise the prevalent patriarchal perspectives rooted in the church's systems and in

the people in the church as well as change the reality that often excludes women from aspects of the church's life.

To make these changes, I argue that ministers must use my guidebook, which is designed to promote a sense of gende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through teaching what Jesus preached. People in the church must learn the message of the Bible in light of Jesus's understanding of humans, rather than through traditional patriarchal understandings. This is the way of a true Christian. What Jesus pursued was a community of equals. However, Korean churches today are subtly and intentionally strengthening Korean patriarchal culture. Correcting patriarchal beliefs is a way to recover the spirit of Jesus and a way to realize the equal community that Jesus pursued. I hope the guidebook I propose here can contribute to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churches and the actualization of gender equality within them.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Introduction)

A. 문제 제기와 목적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세간에는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실제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제시되기도 하고, 정부의 여성관련 부처의 조직 규모도 커졌다. 여성단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하고, 고위직과 전문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나 성공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위치가 더 이상 억압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1]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여성들의 현실이 비단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와 소외는 21세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교회야말로 그 어떤 곳보다 예수의 정신이 가장 잘 실현되어야 할 공간이지만,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소외가 엄존하고 있다. 교회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대략 70%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나 장로와 같은 직분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신에 교회 내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식당 봉사나 행사 때에 한복을 입고 안내를 하거나 김장 담그기 등등 선교의 일보다는 교회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도우미의 역할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비단 여성 평신도

---

[1] 이재경 et al., *여성학* (서울: 미래인, 2007), 4.

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성의 목사 안수를 금하고 있고, 심지어 여성 목사 안수를 위해 기도했던 한 여성 신학자는 학교 강의에서 배제되기도 했다.[2]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이루는 교회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교인들의 성평등의식의 고양에 초점을 맞춰 실제 목회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성평등적 교재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한국사회의 성차별을 살펴보는 이유는 한국교회는 한국사회 속에 존재하고 교회 구성원은 곧 사회 구성원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는 필연적으로 한국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사회 내의 성차별에 대해 알아 본 뒤, 한국기독교 내에 성차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내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예광교회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최근 식당 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회 내의 성차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어떤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교적 영향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

[2] 최기영, "총신대서 강의 박탈당한 강호숙 박사 '여성 목사 안수 위해 기도했다고 강의까지 폐강합니까," *국민일보*, March 16, 20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4422&code=23111111&cp=nv (Accessed October 13, 2016). 실제로 총신대 강호숙 박사는 2015 년 12 월 14 일 김영우 총장이 참석한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 송년회 자리에서 A 박사가 '여성 목사 안수'를 두고 기도했던 것이 발단이 되어 기도했던 A 박사가 맡고 있던 수업의 강사가 바뀌고 강 박사가 맡았던 수업들이 개설 유보되거나 폐지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신약성서 특히 4복음서에서 예수가 만났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추적해 봄으로써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성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존재로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그들과 소통했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했는가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성평등적 교회를 지향하기 위한 교재를 집필하여 실제 목회현장에서 성도들의 성평등의식의 고양을 위해 가르치고 적용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B. 연구 방법과 제한성

본 연구는 여성신학의 지향점 즉 모든 차별과 배제, 소외와 억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실현되는 대안공동체로서의 평등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목회자가 목회현장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공부다. 전자는 1대 다수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 목회자 한 사람이 다수의 청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이다. 설교에는 분명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설교는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기에는 시공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고, 그로 인해 청중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부득이하게 일방통행식 전달 방법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최근 들어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양방향 소통 방식의 설교를 시도하는 교회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이 일방적 선포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일방적 선포의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주된 이유를 나는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제한 된 시간 내에 설교를 끝내야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연령층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

이다. 요즘 한국교회 특히 도시에서 2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주일 낮 설교가 30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30-40분의 설교시간으로 과연 교인들의 의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 없다.

이에 반해 성경공부는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모아 놓고, 개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 성경공부에 참여한 교인들은 목회자와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목회자의 비전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장점이 있다. 한마디로 성경공부는 쌍방통행식 전달방법의 좋은 예라고 나는 본다. 대부분의 경우에 교인들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데 반해서 성경공부는 교인들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목회자를 봄으로써 신선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목회자와 좀 더 친밀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성경공부가 갖는 좋은 장점들을 활용해서 실제 목회현장에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성평등적 교재를 디자인하고 집필했다.

이 교재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여성에 대한 예수의 관점이다. 즉 신학자나 목회자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을 보는 예수의 관점이 무엇이고, 여성에게 말했던 예수의 의도는 무엇이며, 예수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데 가장 큰 의미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에 속한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을 광의적으로 보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을 닮아간다는 말로 정의를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가졌던 여성에 대한 관점을 우리도 가져야 하고, 예수가 걸어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고, 그의 정신을 우리도 이어 받아야 한다. 즉 예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예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신약성서에서 예수가 만난 여성들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정신과 관점을 찾아내어 목회현장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교인들 역시 마땅히 배워야 할 내용임을 인식시켜 나아갈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먼저 '성차별과 한국사회, 한국기독교 그리고 서울예광교회', '페미니즘과 교회',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와 교회', '예수와 여성' 이 네 가지 핵심 주제어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각각의 이론들에 대해 정리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정리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차별과 페미니즘 그리고 남성중심적 가부장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오해되고 있고,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추구해야 하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예수가 여성들을 바라본 관점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여성 중심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란 모든 인간을 존중하여 차별이 아닌 평등을, 억압이 아닌 해방을, 소외가 아닌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의 정신임을 깨닫는 것이며, 교회는 그것을 온전히 실현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는 크게 성차별의 문제와 페미니즘과 교회, 그리고 예수와 만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공부교재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먼저 성차별이 얼마나 우리 사회

에 만연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이론 정립을 통해서 그 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그 목적을 둘 것이다. 또한 기독교적 페미니즘의 관점을 통해서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제기를 통해서 교회 내의 성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길을 모색해 볼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반드시 교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목회적 방안이 필요한가를 강구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교회 내의 성평등 모색을 위한 연구이지만 최근 들어 한국교회와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못하는 제한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내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예광교회'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는데, 서울예광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혹여 '서울예광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공부 교재에서 다루게 될 본문은 성경 전체가 아닌 신약성서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가 만났던 여성들과의 사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은 교재에서 제외될 것이다.

C.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

여성신학은 실천적 학문 분야이다.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즉 앎에서 그치는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와 삶의 현장과의 괴리 현상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관한 '2013년 한국교회 사회 신뢰도' 조사에서 기독교는 5점 만점에 2.6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 수준'의 3점에도 미치지 못한 점수이다. 또 응답자의 19.4%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 2명만이 신뢰하고, 나머지 8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8%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21.4%가 '교회 내부비리 부정부패가 많아서'라고 답했다. 또한 나이가 젊을수록 교회를 불신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3] 이는 결국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성서의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등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사회는 고학력 사회가 되었다. 앞으로 고학력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지향했던 언행일치의 삶을 보이고, 양성평등의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논문을 제출해서 박사 학위를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예수가 보여준 '휴머니즘적 페미니스트'가 되어서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공동체 운동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실현되는 인간 존중의 공동체, 평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작은 첫걸음을 위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

[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 7-76.

다. 그리고 21세기가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사회적 상황이 되면 여성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그런 의식을 지닌 젊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여전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면, 교회는 결국 여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4] 교회 안에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것을 감안하여 여성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를 통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치고, 더불어 성경공부를 통해서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예수가 지향했던 미래의 희망 공동체이자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연구의 공헌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D. 청중 및 대상

나는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신학'에 관련된 책을 처음으로 접해보았다. 목회자의 아들로서 살아왔고, 신학교 3년을 다녔고,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 왔지만 내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분야였다. 그리고 나 역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선입견으로 갖게 된 편견과 오해 때문에 기피하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주제를 이제서야 내가 접하게 된 것이

---

[4] (고전 14:34, 개정)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먼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바르게 배워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확신을 심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2차적인 청중은 내가 섬기고 있는 '서울예광교회'의 교인들이 될 것이다. 여성신학은 여성만을 위한 것도, 여성들만이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남성들도 반드시 들어야 할 학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성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남성들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의 차별과 억압을 별다른 고민 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이다. 그런 무지와 무비판에서 비롯된 억압과 차별이 이제는 은밀하고 의도적인 억압과 차별로 굳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는 분명 예수의 정신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그렇게 교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목회자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양산하게 되는 것임을 목회자는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교회가 양성평등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경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를 바라보는 예수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경공부교재를 디자인하고, 집필해서 목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수가 추구했던 궁극적 목표 곧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 사용한 용어들의 정의

1. 페미니즘(Feminism): 페미니즘은 여성이 역사적·제도적으로 차별되어 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연구나 교육을 행하는 운동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학문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특별한 관점과 시각으로 여성의 경험을 연구하고, 성차별주의를 변화시키려는 실천학문이다.[5]

2. 페미니스트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은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으면서 절대적이고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전통 신학의 가부장제적인 남성중심적 패러다임들에 대하여 급진적인 탈신비화와 탈코드화를 행한다.[6] 다시 말해서 그 동안 남성들의 눈으로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들을 이제는 여성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모든 신학적 담론을 말한다.

3. 양성평등적 교회론: 여성신학적 관점으로 조명해 보는 교회론은 사실상 이미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교회론에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첨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데 있다. 변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신학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데, 신학은 이해와 해석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회론은 교리로서가 아니라 운동과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통전성을 이루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회 이해의 제시는 이러한 변화와 변혁의 차원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신학적 관점으로 조명

---

[5] 곽삼근 et al., *일상의 여성학* (서울: 박영사, 2005), 3.

[6]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영성·생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25.

해 보는 교회론은 '해방적 교회론'이자 '아직 경험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비전을 지니고 있다.[7]

4. 성차별주의: 성차별주의란 남성우월주의를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성차별주의는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하여 형성된 남성과 여성의 차이성을 문화-사회적으로 고정관념화하여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그리고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차별화하고 구분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성차별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문화적 영역에서 성차별주의는 문학, 광고, 종교적 상징체계 등에서 나타나며, 가정, 학교, 교회, 또는 다른 제도적 기구들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사회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은 성적인 대상물로 인식되며, 여성에 대한 언어적이며 육체적인 공격과 폭력이 강화된다.[8]

---

[7]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51.
[8] Ibid., 17.

Chapter II

한국사회와 기독교 내의 성차별 문제

A. 한국사회 안의 성차별

21세기는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이 지닌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로서의 전환과 더불어 국제적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역할과 여성적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좀 더 바람직한 사회현실을 위한 남녀 파트너십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9]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위와 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여성상위시대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와 소외 심지어 여성 혐오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차별 증거로 자주 제시되는 통계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산출하는 '젠더 격차지수'인데, 이 통계에서 한국은 2015년 현재 145개국 중 115위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젠더 격차지수는 전체 145개국 중 한국이 125위다. 이는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등 상당수 이슬람 국가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특히 성별 소득 격차가 커서 노동시장 참여 여성의 평균소득은 남성의 55%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별 임금 격차 통계에 따르면 전일제 노동자의 성

---

[9] 송인자, *여성과 여성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6), 163.

별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을 비교해 격차를 계산하는데, 한국의 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높다. 이는 여성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남성 노동자의 중위소득보다 36.7% 낮다는 의미이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성별 소득 격차가 20% 미만으로 미국은 17.9%이고 독일은 13.9%이고, 우리 다음으로 성별 격차가 큰 일본이 26.6%인데,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은 무려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10]

또한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유리천장 지수를 평가한 결과, 한국의 유리천장은 28개 국가들 중 가장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11]. 2015년 3월에 발표된 이 지수는 공인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고등교육과 남녀 임금 격차, 기업 임원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9개 항목을 종합해 점수로 만든 것으로 여성의 사회적 장벽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 받고 있는데, 이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25.6점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인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12]

---

[10] 김창환,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OECD 꼴찌," *시사 IN*, August 25, 2016.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766 (Accessed September 12, 2016).

[11] 유리 천장(琉璃天井, glass ceiling)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경제학 용어이다. 이 용어는 청각 장애, 실명 등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 승진에서 차별 받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미국의 경제주간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이 1970 년에 만들어낸 말이다. 위키백과사건, "유리천장," April 7, 2016, https://ko.wikipedia.org/wiki/ 유리천장 (Accessed Nov. 6, 2016).

[12] 조운, "여성에게만 있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아십니까?," *이코노미뉴스*, April 17, 2016.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5814 (Accessed September 15, 2016).

흥미롭다 해야 할지, 아니면 아이러니한 사실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의 여성 정책은 정작 뒷전이라고 한다. 급할 때만 '여성'을 찾을 뿐, 실제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여성정책 평가결과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여성을 운운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에는 여성의 관점이 없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기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은 여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다. 전국여성연대가 2016년 10월에 아이를 기르는 여성 1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권의 보육정책은 5점 만점에 평균 1.74점을 받았다. 특히 보육문제에 불만이 많았는데, 응답자의 90%는 공공 보육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게다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 중심에는 시간제 일자리가 있는데,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며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로 시간제 근로를 내세웠지만 대부분 임금이 열악한 일자리라는 것이다. 또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2015년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이 받는 임금의 62.8% 수준을 받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 리더에 대한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13]

---

[13] 최예슬, "급할 때만 '여성' 찾는 朴 대통령… 정작 여성정책은 뒷전," *국민일보*, November 28, 20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49386&code=11131100&cp=nv (Accessed November 29, 2016).

또한 지난해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발생한 '서초동 화장실 살인 사건'(강남역 살인 사건)은 한국에서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14]. 이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신 질환자의 단순 범죄' vs '여성혐오 범죄'라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단순 범죄로만 보기 어려운 것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흉악범죄의 남성 피해자 수는 900여 명 감소한 반면 여성 피해자는 8,000여 명이나 늘었다는 점이다. 즉 흉악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내놓은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강력 범죄 중에서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악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중이 2002년 75.6%에서 2014년 84.7%로 증가했다. 즉 2014년 전국 기준으로 남성 3552명, 여성 2만 8,929명으로 여성대상 흉악 범죄가 남성 대상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는 곧 남성들의 잠재의식 속에 여자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이 표면적으로는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

---

[14] 서초동 화장실 살인사건 또는 강남 살인사건은 2016 년 5 월 17 일 새벽에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서초구쪽 지역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김 모(34 세)씨가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 사건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어떤 인맥관계도, 살해 원인이나 그 동기조차 없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다. 사건 후에 보도를 통해 남성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범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평소,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발언으로 이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범행에서 여성혐오 범죄의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위키백과사건, "서초동 화장실 살인사건," January 12, 2017, https://ko.wikipedia.org/wiki/ 서초동 화장실 살인사건 (Accessed Mar. 12, 2017).

[15] 박미소, 김성형, "여자를 노린다……그날 나도 강남역에 있었다," *중앙일보*, May 25, 2016. h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19622985 (Accessed August 28, 2016).

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성들을 혐오하고, 범죄의 대상 혹은 분풀이의 대상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우리가 도의적으로 계도하고 또는 법적으로 제재하고자 하는 혐오 표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표현을 말한다."고 주장한다.[16] 그리고 그가 주장한대로 한 남성의 여성 혐오가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음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보았다. 그런데도 일부 남성들은 이를 '묻지마식 범죄'로 몰아가려고 한다. 이미 용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라고 답했는데도 말이다.[17] 이와 관련하여 정희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여성혐오가 인류 역사의 기반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몸과 마음, 이성과 감정, 문명과 야만 등 모든 위계적인 이분법에서 아랫자리는 여성이다. '남성이 정신이면, 여성은 육체'고. '남성이 이성이면 여성은 감정'이며, 정신/이성은 몸/감정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치는 사회가 가부장제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인식론은 여성을 배제, 비하하는 데서 성립된 것이다. "이브의 유혹"부터 "마'녀'사냥", "술, 담배, 여자"처럼 여성은 술과 담배와 같은 급인 대상이다. 여성은 인간(man/kind)이 아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나쁜 의미에는 모두 계집 녀(女)가 들어간다. 일단 혐오(嫌惡)부터가 그렇고, 녀(帤 걸레나 낡은 헝겊이라는 뜻), 비(婢), 첩(妾), 간(奸), 창(娼), 자(姿), 기(妓), 왜(倭), 요(妖)… 끝이 없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이 내면화하고 행동하고 있는 여성 혐오를 과격한 언어라며 불쾌해하고 발뺌하는가. 왜 새로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성 혐오 없이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나이/외모주의, 장애인 차별, 인종주의, 동성애 혐오도 작동하지 않는다. 여성은 가장 큰 타자(他者) 집단이며, 타자를 상징한다. 모든 언어와 인식 체계는 성별화된 은유(gender metaphor) 에 기반하고 있다.[18]

정희진은 우리 언어 속에 이미 여성 차별, 여성 혐오가 내면화 되어 있고, 그 내

---

[16] 유승찬, "자유를 위협하는 악플의 세력화," *경향신문*, August 28, 20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08282120160 (Accessed September 28, 2016).

[17]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강남역 10 번 출구, 1004 개의 포스트잇* (서울: 나무연필, 2016), 181.

[18] Ibid., 182-83.

면화 된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면화 된 것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내면화는 사회 전체가 여성 혐오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까지도 외면하게 만든다.[19] 그리고 그런 혐오는 남성들에게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일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B. 한국기독교 안의 성차별

그렇다면 이런 여성차별은 비단 사회 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교회는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속에 사회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곧 교회 구성원이 되고, 교회 구성원은 다시 사회 구성원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영향 받은 사회적 가치나 현상들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등과 자유가 최고로 실현되어야 할 교회 내에서도 여성차별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먼저 한국감리교회를 살펴보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31년 국내 최초로 여성목사 안수를 법적으로 보장한 교단이다. 한국인 여성 목사가 나온 것도 1955년, 미연합감리회의 1956년보다 1년이 더 빠르다. 이렇게 앞서갔던 교단이었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2006년 1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양성평등지수 통계자료집'(이하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이 자료집을 보면 1972년에는 전체 감

[19] Ibid., 185.

리교 목회자 중에 10.6%가 여성이었는데, 2006년에는 전체 감리교 목회자의 5.37%만이 여성이다. 비율적으로 보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20] 또한 자료집에 나타난 또 하나의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감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은 140명 중에 한 명이, 여성은 1천 명 중에 0.9명이 장로가 되고, 그것도 남성들보다 평균 9-10년이나 늦게 된다는 것이다.[21]

지난해 2016년 1월 14일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연회와 총회의 대표는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 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선출 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다.[22] 이 장정 개정을 주도한 감리교여성연대의 최소영 사무국장은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성과 젊은 층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감리교회 교인 중 여성 비율은 60%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만 하더라도 총대 511명 중 여성은 목사 1명, 장로 16명 등 17명밖에 안 됩니다. 고작 3.3% 수준입니다. 남성 총대 수가 압도적이니 여성 총대는 위축이 돼 총회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2016년 제31회 총회 임시입법회의 장정 개정은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할당제' 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여성차별을

---

[20] 최소영, *"양성평등한 교회를 향해"* in *새가정*, vol. 54, no. 586 (2007), 31-32.

[21] Ibid., 32.

[22] 전용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16), 153. 이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여기에 보면 '가급적'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속담처럼, 처음부터 만족할 만할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래 여성할당제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에서 여성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여성할당제는 현재의 양성불균형을 재조정하여 양성평등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잠정적 방편에 불과하기에 이 여성할당제는 목표를 달성한 뒤에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23]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연회와 총회의 대표는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 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선출 한다."라는 내용은 감리교 내의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겠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감리교 내의 양성평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의식의 전환은 여성들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자유와 평등과 해방의 종교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역사였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억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하여 교부신학자들과 중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여성혐오사상' 이었다는 사실은

---

[23] 임희숙, "한국교회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1 (2009): 282.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24]이며, 악을 가져오는 '위험한 존재'[25]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런 차별과 억압의 근거를 성서에서 찾아내어 합리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곧 성서 해석의 주도자가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남성중심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강요해 왔던 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가부장적인 기독교와 가부장적 유교가 만나 '차별과 복종의 문화'를 강화시키고, '평등과 대화의 문화'를 차단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26]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여성 차별과 억압과 복종의 교회 문화를 내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예광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의 한 가운데 서 있다. 그리고 그 목회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신학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와 신학자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학자는 적용이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실천이 가능한 좋은 이론들을 교회를 위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이론들을 목회 현장 속에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거창한 이론적 체계의 부재로부터 야기되는 실패가 아닌, 아주 작은 구체적인 작고 큰 실천들에서의 실패다."라는 강남순의 말처럼, 나는 목회자로서

---

[24] Aristoteles, *Politika 시학*, trans. 천병희 (파주: 숲, 2009), 58.

[25] Rosemary Ruether, "기독교는 여성혐오의 입장에 서 있는가?" *여성들을 위한 신학*, trans. 이우정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251-73.

[26]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13.

거창하지는 않으나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해 나갈 것이다.[27]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강요된 희생자와 공모자의 입장이 아닌 저항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서는 그날까지, 그들이 충실한 저항자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설득자요, 협력자요, 격려자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다.

나는 이 연구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인식의 변화와 확장을 가져오는 작은 시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나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사역 중에서 교인들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남녀 교인들 모두에게 올바른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의식을 심어주고자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어떤 시각으로 여성을 바라보았는가를 이 성경공부교재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다. 강남순은 "신앙이란 예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28] 나는 그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는 남성중심의 성서 해석을 거부하고,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가부장적 교회를 강요하고, 지속시키려는 남성들의 불순한 의도를 예수의 시선으로 깨뜨려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의도한 참된 뜻이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C. 개 교회 안의 성차별

나는 평소에 설교를 통해 감리교단, 연회 그리고 지방회의 문제들을 자주 언급하

---

[27]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영성·생명*, 333.

[28] 조명신, "신앙이란 예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 *OhmyNews*, August 16, 20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53169 (Accessed May 3, 2016).

는 편이다. 그런데 그런 나의 설교에 대해서 의아해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왜 우리와 별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설교가 자칫 초신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지 않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음을 나 역시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교인들이 미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곧 감리교단의 문제이고, 감리교단의 문제는 연회나 지방회의 문제가 되고, 그것은 다시 개 교회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리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 대체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목회자나 여신도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소외와 억압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은 요즘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녀 사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교회에서는 남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도 전혀 어색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교회에서는 이미 식당 봉사가 전적으로 여성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고정관념이 깨진 지 오래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 장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서울예광교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29]. 특별히 지난 해 2016년에 식당봉사문제와 관련하여 여선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논문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

[29] 이후로 '서울예광교회'라는 명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로 표기하겠다.

나 신뢰도를 보장할 수는 없다. 단지 이 설문조사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나 상황을 보여줄 뿐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제가 곧 전체 한국교회나 감리교회의 문제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만의 문제를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교회의 연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교회는 1969년 6월 13일 사당동 소재 허남숙 전도사 가정에서 교인 7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71년 3월 11일 서울 감리교단 한남지방 소속 '사당제일교회'로 이름을 정하게 된다. 그 후에 몇 번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1996년 10월 30일 사당동 128-21호 건물(대지 180평, 지상 1층, 지상 2층)을 매입하여 교회로 사용했다. 1997년 3월 23일 교회 명칭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는 의미를 담아 '서울예광교회'로 개칭했다. 그리고 2006년 2월 13일 사당동 128-21호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교회건축을 해서 봉헌예배들 드렸고, 그렇게 현재에 이르고 있다.[30]

우리 교회는 시간적으로 보면 48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교회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전라도 지역에서 생활고 때문에 짐을 싸서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내려서 발길 닿는 대로 걷고 걷다가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이곳 사당동은 옛날에는 산동네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와서 말뚝 박고 판자집을 짓고 살았던 곳이다. 산 위까지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물지게를 져서 식수를 공급했고, 비가 오

[30] 류인덕, *2009 서울예광교회 요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예광교회, 2009), 14-15. 교회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요람에 나오는 서울예광교회 연혁과 역대 교역자들을 참고했다.

면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 뻘처럼 진흙탕이 됐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1세대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시골 같은 면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한 예로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심방을 하게 됐는데, 교인들이 심방을 오신 목사님에게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서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실제로 집에서 식사를 차려주기도 했다. 그런 광경은 나의 부친도 목사였는데, 내가 어렸을 때나 봤던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교인들이 그 동안 가정심방을 받을 때면, 식사대접을 집에서 직접 차렸다는 말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도 심방에 식사를 집에서 직접 차려준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들의 주장이 강하게 작용한 교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이전과 관련하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 역시 그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그 몇몇 사람들의 텃새에 목사들이 적응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교인들도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48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의 10대 목사다. 그 48년 가운데 두 분의 목사가 각각 11년과 9년을 시무했다. 그 두 분의 목회기간을 빼면, 나머지 목사들은 대략 평균적으로 3.3년을 시무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계산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9년을 시무했던 5대 목사인 윤장균 목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약 500명 이상 모였다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 목사가 뇌졸증으로 쓰러지게 됐

고, 그 후로는 아직까지도 그 전성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2011년 2월에 부임을 할 때만 해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잡음이 많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6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교회는 지금 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세기를 향해 가고 있다. 좋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굳어져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도 않지만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나는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대외적으로는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또한 내부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는 사람들과 안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안 움직이려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바로 이 교회를 좌지우지 했던 멤버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표면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려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부임해서 4년째가 되던 해에 매주 모이던 금요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자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몇몇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어떤 남자 중직은 금요기도회를 바꾸면 교회를 바꾸겠다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서 복음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것이 진정 빛의 자녀로 사는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더구나 현대인들은 하나 같이 바쁘게 살고 있다. 서울에서의 삶은 지방이나 시골지역과는 삶의 패턴이 많이 다르다. 교회에 많이 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속회예배, 주일낮, 오후예배까지 해서 최소한 3-4번은 교회에 오게 된다.

나는 이런 형태의 교회 운영이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매주 금요기도회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 참석을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단지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결국 변화를 주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는 헌금위원들은 여자 성도들만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직까지 바꾸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내가 2년 전 기획위원회에서 연합여선교회 회장을 기획위원회 회원으로 임명하자는 견해를 밝혔다가 남자 기획위원들의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님을 감지하고 급히 화제를 돌리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었는데, 드디어 올 해 2017년에 처음으로 나의 제안이 받아져서 전임 연합여선교회 회장을 기획위원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이자 성과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획위원회의 여성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설명한 우리 교회의 상황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당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작년 2016년 초에 장로 한 분과 연합여선교회 회장을 통해 여선교회 회원들이 매주 하는 식당봉사를 힘들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여선교회가 더 이상 힘들어서 식당봉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

다. 그래서 우선은 여선교회 회원들의 견해를 알고자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했다. 여기서는 1차 설문조사에 관해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2차 설문조사는 1차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물음이었기 때문이다.[31] 1차 설문조사에서는 세 가지 문항을 물었다. 1. 성도님의 연령대는? 2. 지금의 식당 봉사에 대한 성도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① 종전대로 식당 봉사를 하는 것은 원한다. ② 식사 봉사에 대한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변화나 개선 혹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써 보십시오)

위에 설문조사에 총 33명이 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종전대로 하겠다.'는 의견이 6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27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6명이 대답한 '종전대로 하겠다.'는 대답에서 연령별로 보면 30대 2명, 40대 3명, 50대 1명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종전대로 하자.'고 답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 중에서 특히 30대 중반의 한 여성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 종전대로 하되 식기세척기를 한 대 더 놓자. 어른들이 무너지고 분열되는 것 같다. 사람을 세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진다고 생각한다. 신(新) 바리새인이 될까 염려된다. 봉사의 중요성과 밥 봉사가 다른 봉사에 비해서 덜 고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약자를 위하고 주변 믿지 않는 독거노인 등을 위한 값진 봉사인 것을 교육하

[31] 2 차 설문 조사 내용은 1 차에서 압도적으로 식당봉사에 변화를 주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주면 좋겠냐는 물음이었다. 1. 매달 마지막 주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음. 오후예배 없음 (3 명) 2. 2 주는 외부업체에 맡기고, 2 주는 종전대로 여선교회에서 준비 (4 명) 3. 52 주 전체를 외부업체에 맡김 (16 명) 4. 오후예배 드리지 않음. 식사봉사 없음 (0 명) 5. 기타의견 (3 명, 교회 재정상 시기상조다. 전부 외부에 맡기고 매달 마지막 주와 5 주차는 식사 준비와 오후예배가 없었으면 좋겠음) 2 차 설문조사는 총 26 명이 답함.

고, 신앙교육을 더욱 열심히 해 줘야 한다. 이런 문제가 육체적 힘듦이 있어도 정신적으로나 신념(믿음)적으로 채움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40대에서 한 여성도는 “힘들더라도 종전대로, 예광교회만의 특색이 유지되고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답했고, 40대의 또 다른 여성도는 “종전대로 하되 식당 청소는 남자성도들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종대대로 하자’는 6명 중 3명 만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나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가장 아쉽고 안타까웠던 점은 “왜 우리 여자들만 밥을 해야 합니까?” “종전대로 하되 남자들도 같이 식당봉사를 하라고 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밝힌 여성도가 단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내가 만든 설문지가 그런 대답을 도출해 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여선교회만이 전적으로 식당봉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나는 못내 아쉽고 안타까웠다.

나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여선교회의 식사 봉사를 위한 교육보다 ‘왜 여선교회만이 식사봉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해 주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던 30대 여성도의 의견처럼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식사 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쉽지 않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건축 빚이 많다. 아직도 약 10억 가까운 빚이 있다. 우리 교회 결산은 대략 4억 정도가 된다. 그런데 2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억씩 빚을 갚았다.

그런 이유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 선교와 교육 분야에는 거의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급급했다. 그래서 지난해 2015년부터는 1년에 6천만원을 빚을 갚고 있고, 남는 돈으로는 선교와 교육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는 60대 이상의 여선교회 회원들의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무릎 관절의 통증 때문에 수술을 하고,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20-30년 이상 식당봉사를 해 왔다. 그런데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이, 이제는 그들의 몸이 고장 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식당봉사를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게 된 것이다. 아무리 정신력을 강조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육체의 일이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조사인원 총 33명 중에서 14명이나 변화를 주자고 대답했던 것이다. 나는 육체적 통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여선교회 회원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식당봉사를 하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식당봉사를 할 수 없다고 자신들의 의사만 분명히 밝힌다면, 나는 앞으로도 여선교회에 식당봉사를 맡기지 않을 생각이다.

또한 40대의 여선교회 회원이 제시한 식당봉사가 예광교회만의 특색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식당봉사는 결코 우리 교회의 특색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특색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식당봉사와 관련하여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아는 범위에서 말해 본다면, 한국교회 초기에는 농경사회였다. 그때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교회에 가서 저녁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점점 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교회들은 대부분은 지역사회 교회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차량을 이용해서 먼 곳까지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 서울의 경우는 교통정체 때문에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에서 저녁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올 교인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고안해 낸 것이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교인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었다가 곧이어 드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후예배이다.

그런 이유로 생겨난 점심 식사 준비를 과연 우리 교회만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 놀라웠던 점은 위에 30대 중반의 여선교회 회원이 나에게 직접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식당 봉사라도 안 하면, 선교회 회원들이 모일 일이 없고, 단합이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적잖이 놀랐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숙고해 보니 그 여선교회 회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 원인이 바로 목사에게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결국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다. 식당 봉사 외에도 다른 사역들이 얼마든지 있고,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 대신에 생기는 잉여의 시간을 여선교회 자체의 단합이나 교제 등과 같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음을 가르쳐주지 못한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 여선교회 회원들은 식당 봉사가 교회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생

물학적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여자 성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그 후에 전체 여선교회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음에 논의했던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하고, 현재는 여선교회 회원들 중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자원하는 세 명을 선출해서 식당봉사를 맡기고 있다. 물론 지금의 식당봉사 방안 역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실행되고 있고, 교인들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좀 더 관망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식당봉사의 방안을 시행하기 전에 기획위원회로 모였을 때, 연합여선교회 회장에게 식당 봉사에 관한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 참석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참석한 연합회장이 60대 이상의 여선교회 회원들은 여전히 식당봉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회원들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연합회장에게 "가서 전하세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절대로 죄송해 하지 마시라고요. 여선교회가 식당봉사 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리와 장정에도 안 나옵니다. 그 동안 20-30년 동안 봉사하셨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에 남자 교인들에게 "식당봉사를 하지 않으실 거라면, 남자 분들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여선교회가 해 왔던 식당봉사에 대한 결정조차 남자들이 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의사결정은 남자가 하고, 실제 식사 준비는 여자들이 하는 교회의 의사결정구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교회의 구조는 식당 봉사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맞게 되는 주일에는 오후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오후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점심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여선교회 회원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서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남자 중직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연휴 뒤에 맞게 되는 주일에는 '왜 점심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명절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여성들이 명절을 쇠고 나면 힘들어 한다고 설명을 했다.[32] 덧붙여 명절 끝에는 가게에서 부식 재료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명절을 쉬러 갔다가 주일을 넘겨서 오는 여선교회 회원들도 있을 텐데, 그러게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다른 회원들이 2배 이상의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절 연휴 뒤에 닿는 주일에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중직이 연합여선교회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연합여선교회가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대신 투입되는 것이 연합여선교회인 줄 압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 연합여선교회가 아닙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더 이

[32] 명절 증후군은 대한민국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실제 병은 아니며 심한 부담감과 피로감이라는 증상이 있다. 여성의 경우 명절에 필요한 음식 장만 및 뒷처리와 같은 가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며, 남성의 경우 명절 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운전자의 피로와 장시간 차량에 탑승하면서 발생하는 멀미, 정신적 스트레스까지도 포함된다. 직장인의 경우 기존 일상 생활과 다른 긴 연휴로 인해 생체 리듬이 깨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1997 년에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명절 후 증후군"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위키백과사건, "명절증후군," May 28, 2016, https://ko.wikipedia.org/wiki/ 명절증후군 (Accessed Nov. 14, 2016).

해가 안 됐던 것은 소위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부 여자 교인들 중에도 왜 명절 끝에 맞는 주일에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이다. 나는 묻고 싶다. 주일오후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굳이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교인들은 점심 식사가 끝나면 집으로 다 돌아갈 텐데, 식사를 맡은 여선교회 회원들만 뒤에 남아서 설거지를 해야 하는가? 식당 뒷정리는 누가하고, 식당 바닥 청소는 누가 할 것인가?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과연 설거지를 하는가? 그러면 왜 식사 준비를 하지 않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여자 교인은 하는가? 나의 목회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게 말하는 두 부류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식당 봉사 문제를 보면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느꼈다. 첫째, 어느 정도 역사가 된 교회에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변화를 주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굳어져 간다는 증거일 것이다. 둘째,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일인데, 역설적으로 여자 교인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식당 봉사를 여선교회가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넷째, 식당 봉사를 하지도 않는 남자들 중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섯째,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전혀 낼 줄 모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지난해 2016년 11월 20일 주일에 2017년 신임 연합여선교회 회장을 선출하는 여선교회 총회에서 전임 회장을 포함하여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담임 목사가 신임 회장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그게 편

하다는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도 자신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일할 연합회장을 왜 목사가 지명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나는 여선교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싶지도 않고, 훼손시키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식당 봉사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차별과 배제, 소외와 억압의 문제는 목회자로부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조금 오래 된 통계이지만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NCCK)가 조직한 ‘95 희년 통일교회협의회’의 여남평등교회 공동체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개 교단소속 총 응답자 877명 중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에 대한 물음에 51%가 청소나 음식 만들기, 7.3%가 행사 준비라고 답했다. 이것은 교회여성의 약 60%가 집안 일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역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항목에서는 ‘청소나 음식 만들기’를 선택한 사람은 단지 0.3%뿐이었다. 이것은 한국교회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한국교회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33] 이 설문조사는 약 20여년 전에 실시된 것이다. 지금은 여성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본다. 아니 더 많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20년 전의 인식에 멈춰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젊은 여성들까지도 그런 과거의 인식에 갇혀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

---

[33]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10.

웠다.

최순양 교수는 '여성은 어떻게 교회에서 배제되는가'라는 주제로 연 포럼에서 "권사님을 '밥하는 엄마'로 고정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좋은 어머니상'을 만들어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가족 강화 이데올로기'로는 결혼하지 않으려는 20-30대 여성을 교회가 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교회는 여성을 좋은 어머니로만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고, 교회 안에서 배제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34]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성들 스스로가 권사를 '밥하는 엄마'로 고정시키고 있고, 젊은 집사들까지도 그렇게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차별과 배제와 소외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여성운동에서 내세우는 유명한 슬로건 중에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문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되는 연애, 임신, 육아 등도 사실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둘째, 일상의 영역에 속한다고 사소하게 취급되는 문제도 사실은 노동운동이나 시민권만큼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실천의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선택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고민

[34] 최승현, "권사님을 '밥하는 엄마'로 고정하지 말라," *뉴스앤조이*, April 28, 2016.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71 (Accessed November 20, 2016).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35]

나는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차별과 배제, 소외와 억압의 문제를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첫째, 여성들은 교회 내에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선택'이라는 영역에서 교회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그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 자체가 그러한 인식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회 안에서 관례적으로 해 오던 일들을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고한 문제쯤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제 곧 교회에 있는 다양한 의결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회의 일을 단지 취향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의 정신'에 맞는 선택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가 정해주고, 남성중심의 기획위원회나 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그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예수의 정신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결정인가? 이 일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남성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인가?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수는 없는가? 등등 의제와 결정에 대한 끊임 없는 물음과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희진은 "나의 실천 대상 범위는 기껏해야 나 자신이다. 여기서 '나'는 사회와 대립되는, 동떨어진, 독자적인 개인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으로서 '나'이다."라고 말한

---

[35] 이남희 et al., *젠더와 사회: 15 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파주: 동녘, 2014), 37-38.

다. 그렇다. 내가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목사가 변하지 않고는 교인들도, 교회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변하지 않고는 목사를 포함하여 남성들도, 교인들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의식은 바뀌었는데 몸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개탄한다. 이 말은 일상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치란 일상을 넘거나 일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치와 운동은 일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희진은 머리(mind)가 변하는 것이 '의식화'라면, 몸(mindful body)이 변하는 것은 '변태'라고 말한다. 모든 변화는 새로운 인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변화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36] 그것이 진짜 '변태'(變態)다. 그리고 그 변태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정희진은 "나의 변태는 곧 사회의 변태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는 연속선상의 한 몸인데, 어느 지점에서 그 몸을 자를 수 있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37]

그렇다. 나의 변화가 곧 교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요즘은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현재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다.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사회를 앞서갔다면,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변화시켜 놓고 있고 교회가 사회를 따라가기에도 숨가쁜 현실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 마디로 자기 변화를 게을리 했고, 외면했기 때문이다. 다시

---

[36]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2nd ed. (서울: 교양인, 2013), 288-89.
[37]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2nd ed., 289-91.

말해서 예수의 정신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사가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이래야 하는 거지?'라는 질문이나 아무 고민도 없이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거야' 라는 말로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목사가 고민이 없는데, 교인들이 과연 고민할 수 있을까? 목사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삶의 변화가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고, 교인들의 변화된 삶이 교회 안에 녹아 들어서 교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Chapter III

성평등과 교회 이해하기

이 장에서는 먼저 교회 내의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예수의 정신마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끝으로는 그렇다면 교회 내의 이런 오해와 편견 그리고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 교회 내의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인식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드센 여자들의 남자들에 대한 저항과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개념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대답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되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사회 내에서의 그런 보편적인 인식 또한 교회 내에서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나는 클레어몬트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개념을 거의 처음으로 접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 된 책들 역시 수업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읽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배운 것들을 교회에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가르쳤다. 교인들 특히 여자 교인들조차 대부분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해 봤다고 말했다. 몇 주간에 걸친 교육을 끝내고 각자의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70대의 여자 교인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다. “그래도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 남자를 먼저 세워줘야 한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음의 두 가지를 느꼈다. 하나는 내가 몇 주 동안 무엇을 했는가 라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다. 다른 하나는 오해와 편견이 가져온 고정관념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려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남순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성차별주의적 의식과 제도들이 한국사회, 가정, 종교 속에 너무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38] 그리고 이것은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 당장에 부딪치는 문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은 무엇인가? 강남순은 먼저 페미니즘(feminism)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쓰지 않고, 원어의 발음 그대로 쓰는 것을 지향하는데, 그 이유는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권주의’나 ‘여성해방주의’ 등의 용어만으로는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39] 한 예로 강남순은 ‘feminist theology’의 한국어 표현인 ‘여성신학’이라는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된 이유로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의 결여’라고 지적한다. ‘페미니즘’을 ‘여성주의’라는 말로 쓰게 되면 이 ‘여성주의’라는 용어가 자칫 여성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성원리를 이상화하는 ‘여성중심주의’(gynocentrism)와 동일어로 받아들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페미니스트들 모두를 ‘여성중심주의자’라고 여기는 선입견을 가지고

---

[38]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6.

[39]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37.

있다는 것이다.[40] 페미니즘(feminism)이란 여성도 인간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이나 주장을 뜻한다. 우리말로는 '남녀평등사상', '여성해방론', '여성주의'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된다. 페미니즘의 어원은 '여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femina'에서 유래됐다. 이 단어는 1830년대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가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리에는 무릇 진보라면 여성의 권리 확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페미니즘(féminisme)이란 단어는 19세기 중반 이후 '여성의 권리를 주창'한다는 뜻으로 언론에서 사용되었고, 1890년대 참정권 요구 등 여권운동이 한창이던 영·미로 전해졌다. 그리고 페미니즘 사상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을 페미니스트(feminist)라고 명명했다.[41]

현대에 와서는 페미니즘의 19세기의 개념이 다시 바뀌게 되는데, 19세기에서와 같이 단순히 여성의 더 나은 위치를 얻고자 하는 여성운동이 아니라 여성의 종속적인 상황을 끝내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운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이론이다. 둘째, 이런 권리를 얻기 위한 조직화 된 운동이다. 셋째, 개인이 아닌 집단화 된 여성의 주장들과 그 여성들이 창출해 이론들을 가리킨다. 넷째, 여성의 힘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 변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신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

[4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6.

[41] 이남희 et al., *젠더와 사회: 15 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21.

와서 페미니즘의 중요한 의미는 페미니즘이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간관을 요구하는 이론이나 운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제 페미니즘이 단순히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구조적인 문제들, 생태계 위기, 어린이와 노인들에 대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초기 페미니즘에서는 '권리'(right)와 '평등'(equality)의 용어가 주로 많이 사용됐다면, 1960년대 말부터는 '억압'(oppression)과 '해방'(liberation)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된 것은 1960년대 말기에는 흑인해방이나 제3세계 해방운동이 출연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페미니즘도 여성해방이라는 단어로 스스로를 명명하게 된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사회적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42]

그런데 이 '억압'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억압(oppression)은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고통 당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조건에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야기된 상황을 말한다. 즉 억압은 한 개인 또는 그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억압은 '개인이나 그룹의 자유에 대한 불의한 제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해방'이란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43]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억압과 해방 그리고 자유와 정의는 서로 간에 긴밀한 개념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

[42]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37-39.

[43] Alison M. Jaggar,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Susex: The Harvester Press, 1983), 6-7.

언급되겠지만 이런 개념들을 또한 예수의 정신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페미니즘 사상을 따르고 실천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해방과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이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자기 실현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단적인 차원에 그 목적을 두기도 한다. 둘째,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의 평등과 자유의 실현이 가능한가? 또는 불가능한가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 억압의 근원에 대한 주장에서도 각기 다른 견해를 표방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니미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으로 나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44]

위와 같이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알려진 구분이라면, 다른 구분 방식 중에는 휴머니즘적(humanist) 페미니즘과 여성중심적(gynocentric) 페미니즘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다.[45] 일단 여성 중심적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것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던 것과는 반대로 여성의 경험에 내재화 되어 있는 가치를 우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여성중심적 페미니즘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중심적 페미니즘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원론적 위계구조의 순서를 단지 '남자/여자'에서 '여자/남자'로만 바꿔놓았을 뿐 여전히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44]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39.

[45] Young Iris Marion, "Humanism, Gynocentrism and Feminist Politics,"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8, no. 3 (1985): 173-83.

가지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서만 구분을 하다 보니 사회적 계층, 인종, 종교 등 다양한 삶의 요소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억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결여로 인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휴머니즘적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의 다름은 필연적인 것이 아닌 우연적인 것이며, 여성과 남성 모두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발전을 추구해야 할 존재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이해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강조된다.[46]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이상 여성문화/ 남성문화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이나 여성경험의 우월성/남성경험의 열등성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47]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직적으로 제도화 되어 여성들이 배제되는 현실과 내면화되어 버린 여성비하의 인식들을 어떻게 개혁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라고 본다.[48] 강남순은 이런 이유에서 휴머니즘적 여성신학을 지향하고 있는데, 나는 그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휴머니즘적 여성신학은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구조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대신에

---

[46]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408-09.
[47] Ibid., 410.
[48] Ibid., 410.

남성을 포함하여 여성의 인간화를 실현하기 위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9]

여성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조건들을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목회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가부장적 사고를 해체하는 것이며, 해체 한 후에는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50]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다양한 현대 신학적 이슈와 목회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펼쳤지만 페미니즘의 문제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도 못했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강남순은 크게 두 가지 즉 하나는 한국사회와 기독교계의 보수성이고, 다른 하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51]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이다.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52]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 단어를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를 따라가는 자' 또는 '예수를 닮아가는

---

[49] Ibid., 410.

[50] Ibid., 410.

[51] Ibid., 370.

[52] 그리스도인 [Christian]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란 뜻.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자를 가리키는데, 예수의 제자나 성도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호칭이다. 이 말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최초로 사용되었는데(행 11:26; 26:28). 후에 사도 베드로도 고난 받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런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런 칭호인지를 강조한 적이 있다(벧전 4:16, Polycarp). [네이버 지식백과] "그리스도인 [Christian]," (라이프성경사전, 2006. 8. 15., 생명의말씀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90696&cid=50762&categoryId=51387 (Accessed Nov. 2, 2016)

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의 정신은 무엇인가? 예수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남성신학자 스위들러(Leonard Swidler)는 그의 논문에서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Jesus was s Feminist)."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따르려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페미니즘 정신도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53] 이러한 페미니즘 정신은 인간을 하나의 개체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서 이해하는 기독교적 인간이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외적이고 생물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차별될 수 없다는 인간존엄 사상에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54] 강남순은 이것을 '기독교 페미니즘'(Christian feminism)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기독교 페미니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전제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페미니즘은 어느 정도는 여성의 필요와 상황에 강조점을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권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온전한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페미니즘'과는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남순은 그런 전제에서 '페미니스트'(feminist)란 "성별에 관계 없이 한

---

[53] Leonard Swidler, "Jesus Was a Feminist., *Catholic World* (January 1971), 177-83.
[54]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371.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사회, 경제, 정치, 종교적 정의(justice)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여성이 페미니스트도 아니며, 또한 굳이 여성만이 페미니스트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저 이런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모두가 페미니스트라는 것이다.[55]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위들러의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Jesus was a Feminist)."라는 정의보다는 강남순의 "예수는 휴머니즘적(humanist) 페미니스트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의 '휴머니즘적 페미니즘'이 곧 '기독교적 페미니즘'이라고 보는 견해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대체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이나 기독교인들조차도 '여성중심적 페미니즘'으로 한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게 되는데, 하나는 전통적으로 구분하던 이원론적 위계구조 곧 남자/여자를 단지 순서만 바꿔서 여자/남자의 위계질서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남성과 여성 간의 대결구도를 유지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는 또 다시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여성중심의 사고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억압을 보지 못하고,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한을 제시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선입견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겼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 내에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뜨릴

---

[55] Ibid., 370-71.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정신이 무엇이고, 예수가 보여준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중심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적 페미니즘'이었고, 그것이 곧 '기독교적 페미니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

B. 교회 내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의 인식에 대한 고찰

앞에서 나는 한국교회에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임을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의 문제이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이제 130년을 넘었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유래가 없는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교인 수는 감소하더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급감하기 시작했다.[56] 이렇게 교세가 급감하게 된 것에

[56] 이인창, "'교인수 감소, 교회수 증가' 침체현상 뚜렷 정기총회 자료집 분석, 각 교단 교세통계 지속적 감소," *기독교정보은행(BCI)*, September 29, 2016. http://nohyongchan.blog.me/220823726700 (Accessed Nov. 5, 2016). 최근 2015 년 한국의 주요 대형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목회자 수와 교회 수는 증가한 반면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장 통합(0.76%, 대력 3 만여명), 예장 합동(0.8%, 2 만여명), 기독교대한감리회(5.7%, 7 만여명), 한국기독교장로회(6.9%, 1 만 5 천여명) 4 개 교단이 감소했다. 예장 고신(2.2%, 1 만여명)과 예장 합신(2.8%, 4 천 여명)만이 약간 성장을 뿐이다. 예장 고신이나 예장 합신은 다른 교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는 100 만명에서 많게는 200 만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교인 수의 급감은 대부분의 교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내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지난해(2014 년) 기준으로 교회는 늘고 교인 수는 줄었다. 연회보고 자료 집계에 따르면 2015 년 기준 전체 교인수는 137 만 5,316 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5.67%(7 만 8,035 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20 년대 최대치라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교회는 77 개, 목사는 384 명이 늘어났다. 한편, 전체 교단들에서 다음세대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통합총회 변동 현황이다. 특히 2015 년에는 영아부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모든 부서가 감소됐다. 주일학교 부서별 감소폭은 적게는 2 백여명에서 많게는 1 만이 넘었다. 특히 중고등부의 경우 15 만 2,327 명에서 14 만 6,763 명으로 줄어 다음세대 감소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여러 방면에서 그 원인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 교회의 세속화,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기복주의와 개인주의 신앙, 괄목한 성장에 도취되어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대한 망각, 성공만을 추구하는 번영의 복음으로의 변질 등등 그 원인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세 감소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고, 또한 특정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의 경우를 일반화 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여성 리더가 많은 노회의 교세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57] 이 통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 리더가 많은 노회의 교세 감소가 적었다는 통계가 곧 여성 리더가 많은 노회의 교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여성 리더가 많은 노회의 교세도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성 리더가 없는 노회에 비해서 교세가 적게 감소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교회에서 여신도의 감소는 뚜렷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58]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성장지상주의, 맘모니즘, 가부장적 · 획일적 사고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또한 교회의 위상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지나친 남성화와 연관이

[57] 차유진, "女 리더 많은 교회…교세 감소 적다," *기독교공보*, August 30, 2016.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95 (Accessed Nov. 20, 2016).

[58] 차유진, "교회 여성 감소 뚜렷," *기독교공보*, August 16, 2016.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75 (Accessed Nov. 20, 2016).

있다고 보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59] 나 역시 이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됐다. 현재는 교세의 양성 비율이 점차 평준화 되고 있다. 사회와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위상에 대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이탈하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는 이미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기독교 선교 역사는 130여 년을 넘어섰다. 물론 가부장적 사고의 뿌리가 되는 유교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 A.D. 372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유교가 들어온 후, 국민 교육의 이념과 국가제도는 유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특히 1392년 시작된 이 씨 조선은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삼게 된다. 그 결과 조선의 건국이념인 유교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유교적 영향은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다양한 삶 속에 유교적 가치관이 수용되고 뿌리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기독교 혹은 한국교회를 논하면서 유교적 영향을 분리해서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둘 사이의 관계를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내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60]

---

[59] 차유진, "女 총대 할당제가 필요한 2가지 이유," *기독교공보*, September 23, 2015.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25 (Accessed Nov. 20, 2016).

[6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97-98.

그런데 바로 그 내적 연관성이 한국기독교가 성숙한 기독교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 있어 장애가 되는 기독교 외적 요인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교적 영향이며, 이러한 평가는 가치중립적(value-neutral)인 관점이 아니라 평등주의(egalitarian) 관점으로 유교와 기독교의 문제를 살펴본 후에 내린 결론임을 강남순은 밝힌다.[61] 기독교가 예수의 정신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 중에 유교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기독교는 유교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교가 한국기독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어쩌면 유교와 기독교는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 강남순은 일부 유교와 기독교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두 종교의 만남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공통적으로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유교의 실천적 차원에 대한 관심의 결여이다. 즉 한 종교의 영향 아래에서 있던 사람들 곧 남성과 여성들이 또는 양반과 상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교와 기독교와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유교의 이론적 특성만을 내세울 뿐, 실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1 조 1 항과 2 항은 다음과 같다. “1 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61] Ibid., 98.

다.”[62] 그런데 이 문구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 자신부터 믿기가 어렵다. 게다가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위와 같은 대답은 시험문제로 출제 됐을 때나 적는 정답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바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헌법 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억지 주장이자 궤변에 불과할 것이다.

종교가 구체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 그리고 그 종교가 제시해준 가치관과 인생관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삶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유교는 고려와의 차별성을 위해 조선이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종교였다. 그리고 그 유교는 조선 중기 이후에는 가족과 사회 전반에 걸쳐 더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마르트나 도이힐러 교수는 ‘변하지 않는 유교적 여성 이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한국에서 유교 이데올로기는 여성에 대한 가혹한 통제를 의미했다. 유교 입법가들은 남성에게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이 집안에서만 지위와 권위를 가지도록 하였다. 여성의 영역은 정부가 직접 처리하고 싶지 않은 ‘별개 세계’였다. 그래서 정해진 기능에서 일탈한 여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여성에게 직접 하기보다는 남편이나 아들 같은 남성 대표자에게 부과하였다. 유교 이데올로기는 특별한 행을 수행하는 여성의 역할을 만들어냈고(예를 들면, ‘후덕한 아내’, ‘순종적인 며느리’, ‘수절한 과부’), 여성을 이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실천한 여성과

---

[62] 대한민국헌법, “제 1 장 총강, 제 1 조 1 항 2 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1988.2.25.] [헌법 제 10 호, 1987.10.29., 전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Accessed Mar. 13, 2016).

>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분류하였다. 친족이 기록하고 그들의 문집에 첨가한 여성에 대한 전기傳記에는 개인의 성격에 대한 정보는 아주 조금 밖에 없다. 그런 기록에는 여성을 유교교리에 충실한 화신으로 교조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63]

둘째로, 평등주의적 또는 해방주의적(liberationist)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하나인 '정의' (justice)에 대한 관심의 결여에 있다.[64] 현실 속에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억압과 불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느 상황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보편적 정의의 주장은 모든 역사 속에서 있어 왔지만 그런 보편적 정의의 개념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불의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의에 관해 말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또는 '어떤 시각에서 본 정의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65] 그렇지 않으면 그 정의는 일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의가 될 것이고, 불의의 현실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시키며, 더 강화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두 종교의 상이성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교와 기독교에 대한 논의에서 두 종교의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서 두 종교가 지닌 유사성들

---

[63]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한국의 유교화 과정*, trans. 이훈상 (서울: 너머북스, 2013) 379.

[64] 강남순은 기독교적 정의의 개념을 이사야 61장, 그리고 누가복음 4:18-19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65]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00-01.

을 강조한다.[66] 그러나 결정적 상이성들을 보지 못함으로써 기독교의 해방적, 변혁적 요소가 차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교의 상제(上帝)와 기독교의 신(神)의 개념 간의 유사성은 자주 언급되는 반면에 두 개념 간의 결정적 차이는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의의 신, 해방의 신, 출애굽의 신으로 표현되는 기독교 신의 특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순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유교의 상제 개념 속에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모습이 있는가? 억압 받는 자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이 있는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연대성(solidarity)의 개념이 있는가?" 한 마디로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과도 같은 특성들이 결여되어 있는 상제 개념과 기독교 신을 동질화하려는 시도는 자칫 '반쪽 진실'(half truth)을 '전체 진실'(whole truth)인양 오도하게 되는 위험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강남순은 유교가 가장 크게 결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의'라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67]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교회나 교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기독교적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며 실제로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기독교 사상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유교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성중심

---

[66] 강남순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줄리아 칭은 기독교와 유교는 윤리적 관심에 있어서 공유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교가 잘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Julia Ching,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xxii.) 또한 윤성범 박사는 유교와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父子'관계의 중요성이라고 본다. 이 두 종교에서 부자관계는 상징적으로 절대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부부관계보다 선행한다는 것이다. 윤성범 박사는 예수의 하나님의 관계는 유교적 효의 개념과 동일하며, 유교와 기독교는 동양의 종교로서 그 윤리가 가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봄으로써 두 종교의 강한 유사성을 강조한다.

[67]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01-02.

적 가부장제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가부장제의 원형은 서구 로마의 가부장제(partriarchy)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마의 가부장제는 가족 중 노예와 여성, 아이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가부장의 권한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가부장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아내는 남편보다 육체적, 정신적 힘이 열등하며, 어린이는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고, 노비는 어릴 적부터 주인의 권력에 복종하는 태도가 생활에서 함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8] 그래서 여성학자들에게 가부장제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또는 억압구도라고 말하기도 한다.[69]

오늘날 한국에서 가부장제는 가부장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의 가부장제(partriarchy)보다 그 강도는 약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사회 전반에 걸쳐 훨씬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가부장제는 일종의 억압상황을 가리키는데, 좁게는 특히 연장자인 남성이 연하인 여성에게 억압을 가함으로써 남성의 권력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또는 불이익을 뜻하고, 넓게는 성별, 연령과 상하관계에 따른 억압과 복종의 상태까지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보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남녀, 노소, 상하 간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억압상황의 대부분을 가부장제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이 과거 특히 조선시대의 유교에서부터 유래했다고 믿고 있다.[70]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

---

[68] Max Weber, *Soziologie der Herrshaft 지배의 사회학*, trans. 금종우 and 전남석 (서울: 한길사, 1981), 74.

[69] 박미해,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서울: 아카넷, 2010), 15.

[70] Ibid., 18-19.

박해미는 조선시대 사회의 가족 내에서 이상(理想)으로 보았던 유교적 덕목은 가장에 대한 공손, 가족 간의 화목과 형제 우애, 가문의 명예에 관련된 남녀의 내외(內外) 등이었다고 말한다.[71] 이런 유교적 덕목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상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목회자에 대한 복종 또는 공손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직분이 낮은 사람은 직분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72] 아랫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기도 한다. 교회가 시끄럽지 않으려면, 잠잠해야 한다고 말하고, 당회나 임원회에서 특히 여성이 손을 들고 발언하는 것을 마뜩잖은 것으로 여긴다. 이로 인해 원천적으로 건설적인 비판마저 봉쇄해 버린다.

또한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는 장로나 중요 직분은 남자들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 목회자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그리고 같은 자격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혹은 남편이 먼저 장로가 되는 것이 좋다고 심지어는 옳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유교적 관계성 곧 적서차별, 남녀차별, 양반/상민 차별, 장유차별 등을 끊임 없이 강조함으로써 '차별과 복종의 문화'는 강화시킨 반면에 '평등과 대화의 문화'는 차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

[71] Ibid., 123.

[72] 나는 교회 직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낮음 따로 없다. 교회의 직분은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개념이지 높아진다는 개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장로가 권사보다 높고, 권사가 집사보다 높고, 집사는 평신도 높다는 개념은 가부장적 인식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 낸 개념이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유교적 관계성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적 '정의'의 개념과 '연대성'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73]

우리는 기독교가 제도화된 종교로서 굳어지기 이전에 그것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정신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남녀 모두 다 존귀하다는 평등의 정신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와 같은 평등의 정신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평등공동체'이자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 받던 사람들을 위한 '해방 공동체'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 장에서 나는 '교회 내의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설명하면서 1960년대 말에 흑인해방이나 제3세계 해방운동의 출연으로 페미니즘도 여성해방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억압'(oppression)과 '해방'(libe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의 '휴머니즘적 페미니즘'이 만나고 있다고 본다. 성경에 보면 예수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 곧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

[73]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13.

하심이라 하였더라."[74]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문구가 있다. 바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이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각각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라고 번역되어 있다.[75]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억압(oppression)은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고통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조건에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야기된 상황을 말한다. 즉 억압은 한 개인 또는 그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의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해방'이란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바로 억압 받는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것이다.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는 영적 의미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서 개인과 그룹에 의해서 불의한 억압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려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어야 할 장소가 바로 교회다.

이제 한국기독교는 자기 검증을 통하여 유교적 영향으로 생겨난 교회 내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의 부정적 요소 곧 차별과 배제, 소외와 억압을 타파하고, 예수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

[74] 누가복음 4 장 18-19 절 (개정판).

[75] [18]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 ⓔ사 61:1; 2 [19]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 장 18-19 절 (표준새번역)

보면 차별 받고 소외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며,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예수의 정신 위에 바르게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C. 교회 내의 여성들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 모색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NCCK)가 1995년을 '희년의 해'로 제정하고,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회여성들이 '95 희년통일교회협의회'를 조직하면서 그 협의회 산하에 있는 '여남평등교회공동체위원회'는 한국교회 여남평등 공동체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76] 이 장에서는 '여성평등교회공동체위원회'가 실시한 '한국교회 여남평등 공동체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몇몇 문항들과 비교하면서 한국교회 내의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을 살펴볼 것이다.[77]

---

[76] 이 설문조사는 예수교 장로회(합동), 예수교 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루터교회 등 9 개 교단에 속한 877 명의 교회여성들로부터 회수한 설문지 응답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설문지는 52 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문항 중에는 인적 사항, 신학적 이해, 교회 내에서의 역할과 위치 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인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상층 중년여성들로, 교회에 출석한지 10 년 이상이 되었고, 대략 100-500 명 정도의 출석교인이 있는 교회의 교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하 이 설문조사에 대해 언급할 때는 '공동체위원회 조사'라고 표기함.

[77]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2008 년 6 월 15 일-7 월 30 일, 45 일 간에 걸쳐 연합회에 소속된 5 개 교단 (감리교, 복음교단, 성공회, 예장, 기장)의 800 여명의 교회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단별로 감리교가 35.8%, 기장이 22.6%, 연령별로는 50 대 이상이 75%, 출석기간은 20 년 전후가 93%, 교회 직분은 집사 이상이 86%를 차지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위 메이저에 속한 교단에서 오랫동안 믿음생활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교회활동을 하던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 40 개에 달하는 설문의 내용은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활동에 대한 것, 교회 내에서 여성의 위상에 대한 것, 헌금에 관한 것, 교회 체계와 기독교 전반적 활동에 대한 것 등인데, 특히 앞에 두 범주에 속한 것들이 성차별적 현실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반응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하 이 설문조사를 언급할 때는 '여성연합회 조사'라고 표기함.

‘여성평등교회공동체위원회’가 실시한 ‘한국교회 여남평등 공동체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이제까지 한국교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있어 왔지만, 한국교회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지위와 관련하여 불균형의 문제를 여성들 자신이 논의한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다룬 예가 거의 없었다. 더구나 한국교회 교인의 7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의식구조나 교회 내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설문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교회 내의 여성들의 의식과 교회 내의 역할과 위치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성평등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78]

먼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자, ‘하나님의 정의’(좋아하는 표현)를 묻는 질문에 41.7%가 ‘구원의 하나님’, 24.5%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높은 비율로 대답한 반면에 ‘정의의 하나님’(9.4%)과 ‘심판의 하나님’(0.5%)이라는 대답은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물론 여기에서 묻는 문항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개념들이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이해다. 하지만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여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옳고 그름의 정의의 문제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구원과 사랑에 더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또한 ‘어머니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거부감이 든다’(34%), ‘그저 그렇다’(26.6%), ‘매우 거부감이 든다’(14.5%)로 응답자의 약

[78]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54-56.

75%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79]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좋아하는 표현)을 묻는 질문에는 '구원자 예수'(46.0%), '대속자 예수'(35.0%)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 이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한 이해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에 대한 이해에서 물었던 문항에 '여성을 제자로 인정한 예수'(1.6%),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성들의 친구이신 예수'(4.3%),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위해 희생 당하신 예수'(2.3%)에 대한 개념들은 세 항목을 다 합해도 10%가 채 안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문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35.1%), '지금 여기에 이루어져야 할 그 나라'(22.8%),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저 세상'(11.4%)라고 가장 많이 대답한 반면에 '소외 당하고 사람들에게 평등과 자유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사회'(7.9%), '정의, 평화, 사랑이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4.7%)에 이해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80]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결국 교회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과 자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라는 더 높은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세운 교회 역시 평등과 자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야

---

[79] Ibid., 157.
[80] Ibid., 158-59.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리라고 본다.

'여성들의 교회활동과 사회활동'에 대한 설문에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조사해 보았다. 먼저 51%의 여성들이 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청소/음식 만들기'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하고 싶은 활동' 항목에도 '청소/음식 만들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 0.3%만이 대답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강남순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여성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해 왔던 '청소/음식 만들기'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렇게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여성 곧 자신들의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이 엄청난 차이는 결국 교회생활에서의 여성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자기 이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유발하게 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81]

또한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물음에 대해 31.4%가 '교회여성연합운동'에 참여한다고 대답을 했다. 하지만 '교회여성연합운동'은 사회활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교회를 통해 지방, 연회, 교단과 연결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교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 곧 '여성신학 운동'(2.9%), '민주화 운동'(1.8%), '평화통일운동'(3.8%), '환경운동'(9.9%), 성폭력방지운동(0.8%),

[81] Ibid., 161-62.

‘정신대대책활동’(0.8%), ‘계속 교육 프로그램’(5.4%)로 사회와 국가적 차원 더 나아가 인류적 차원의 문제와 연관된 활동에는 약 17% 정도의 여성들만이 참여한다고 대답을 했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볼 점은 43.4%의 여성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교회 밖의 활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강남순은 이렇듯 교회 여성들이 사회활동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측면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가장 활동적인 나이인 30-40대 여성들이 자녀교육과 입시에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한다. 더구나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학원을 안 보내면, 내 자식만 뒤처지는 것 같고, 서울대, 연·고대를 못 들어가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 외에 다른 사회적 활동에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별로 없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면 한국의 사회의 구조 특히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개인의 힘으로 사회구조나 교육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어도 자기 자신의 의식과 삶의 패턴 그리고 가치관을 바꿀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강남순은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의 재편을 통하여 그 동안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만 받아들여왔던 3K의 영역들인 부엌(Küche), 아이들(Kinder), 그리고 교회(Kirche)에만 삶의 관심을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관심의 폭을 넓혀갈 때, 사회 활동의 관심과 영역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82]

'정책결정기구에의 참여도' 항목을 통해 여성들이 교회의 정책결정기구에 얼마나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가를 보면, 한국교회서의 여성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보면, 60.8%로 가장 많은 수가 '여선교회'(여전도회, 여신도회, 임원회)에 참여하고, 9.0%가 '구역장'(속회 회의)에 참여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선교회'나 '구역모임(속회)'은 교회의 정책결정기구로 보기 어렵다. 정책결정기구라고 볼 수 있는 '개 교회의, 각 위원회(2.3%), '당회, 공동회의, 신자총회'(2.1%), '구역회, 제직회의'(6.6%), '지방회, 사찰회의'(0.7%), '총회, 관구회의'(0.2%)로 결과가 나왔다. 교인의 70%을 이루는 여성들이 교회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겨우 11%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남성중심적으로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심하게 말하면 30%의 남성들이 결정을 하면 70%의 여성들이 교회에서 청소하고, 음식 만들기 등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남녀 차별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여성들이 정책결정기구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성 스스로 참여의식이 없기 때문에'는 대답이 40.7%이고, '여성이 여성 대표를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가 16.7%로 이 두 가지 이유를 합하면, 57.6%의 많은 여성들이 그 이유를 여성들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과 기구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구조적이고 의식적인 요인에서라기보다는 도리어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82] Ibid., 163.

자신에게 문제를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반해 18.7%의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와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았고, '목사의 설교 내용이 여성 복종을 강요하기 때문'(0.6%)이라고 답했고, '교단이 여성 안수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12.%)이라고 응답하기도 했고, '여성의 침묵을 강조하는 성경구절 때문'이라는 대답은 2.3%에 불과했다. 이런 대답은 비록 소수지만 일부 여성들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혹은 성서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은 여성들의 의식화가 앞으로는 개선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보여주는 것 같아 위안을 삼게 된다.[83]

그러면 정책결정기구에의 참여도나 결정과정에 대해서 '여성협의회 조사'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계획하는 일을 주로 남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80.4%의 여성들이 "여자들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것 같이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해도 84.3%에 달했다. "예수의 열두 제자가 남자이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남자인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대답도 77.9%나 되었다. 이런 비율의 대답을 보면, 여자들은 교회 내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둔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낼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실제로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84]

---

[83] Ibid.,164-65.

[84] 강영한 et al.,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197.

두 설문조사, '공동체 위원회 조사(1995년)'와 '여성협의회 조사(2008년)' 간에는 약 12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분명 많은 면에서 여성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두 설문조사에 공통점이 있다면,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 두 조사 모두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특히 정책결정기구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차이점이 있다면, 2008년에 한 '여성협의회 조사'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이 전환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1995년과 2008년 모두 머리로 생각하는 이론과 실제 현실과의 차이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공동체 위원회 조사' 항목을 살펴보자. 여성의 정책결정기구의 참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30.4%가 '여성안수를 불허하는 교회법의 폐지', 17.8%가 '여성 스스로의 조직적인 연대활동'이라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 흥미로운 점은 '남자 목사들의 의식 전환'이라도 대답한 것이 13.0%가 차지했다. 이것은 비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목회자들의 의식전환이 곧 교회 내의 여성들의 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여성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목회자들의 진지한 자기 반성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85]

위에서 여성들이 교회의 정책결정과정과 기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여성들만의 모임인 여선교회(여전도회, 여신도회)의 프로그램에서 초빙하는 강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누가 행사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의미를

[85]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65-66.

가진다고 본다. '강사결정권'이라는 물음에 대해서 여선교회 내의 임원회가 38.7%로 나타났고, 담임 목사라는 대답이 34.7%였다. 이것은 여성들 자신들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온전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강사를 섭외하는 데 있어 여성들로서는 강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어떤 성향의 강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반대로 여성들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여성들의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자극해서 도전 받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목회자의 의식의 전환은 교회 내의 여성들의 의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의식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목회자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86]

'예배와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여성 참여'에 관한 문항에서 각각 53.7%와 54.3%로 예배순서와 교육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회정책결정기구나 교회 지도력 구성에서 배제되는 불평들을 경험하면서도 예배와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87] 나는 이것이 아마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예배를 중시하는 성향 때문에 예배나 교육프로그램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 차별 받지 않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여성들이 예배나 교육프로그램에서 배제가 된다면, 여성들은

[86] Ibid., 166-67.

[87] Ibid., 167-68.

정책결정기구에서 배제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여성협의회 조사'의 문항과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일단 성차별과 관련된 질문에서 "자신의 교회에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37%가 "없다."(거의 없다 포함)고 대답했고, "약간 있다"가 47%였다. "설교나 교육 시간, 혹은 교회 내 모임 중에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이나, 여성 비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75.0%가 "없다."고 답했으며, 11.4%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11.6%만이 "있다."고 대답했다. "자신의 교회에 남녀차별이나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32.1%가 "소란 없이 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14.3%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고, "논의를 통해서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대답이 50.8%로 주를 이뤘다.

여기에 대해서 김호경은 이 수치들이 교회 안에 신학적·구조적·정서적·언어적으로 성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차별의 대상자인 여성들은 그것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략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회 내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85% 정도는 설교나 교회 모임 중에서 성차별적 발언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88]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김호경은 한국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신학적·구조적·정서적·언어적 성차별의 현실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글을 쓰는 것인데, 성차별이

[88] 강영한 et al.,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193-94.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차별을 해결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교회 내 여성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인가? '여성연합회 조사'와 '공동체 위원회 조사' 간에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연합회 조사'에서 "자신의 교회에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37%가 "없다."(거의 없다 포함)고 대답했고, "약간 있다."가 47%였다.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본 비율이 10% 정도 높았다. 그런데 "설교나 교육 시간, 혹은 교회 내 모임 중에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이나, 여성 비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75.0%가 "없다."고 답했으며, 11.4%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11.6%만이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공동체 위원회 조사'에서도 교회정책결정기구에서의 여성들의 참여도는 겨우 11%에 불과했다. 교인의 약 70%가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11%의 참여는 분명 불평등한 차별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예배와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여성 참여'에 관한 문항에서는 각각 53.7%와 54.3%로 예배순서와 교육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연합회 조사' 항목에서 "자신의 교회에 남녀차별이나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32.1%가 "소란 없이 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14.3%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고, "논의를 통해서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대답이 50.8%로 주를 이뤘다. 그러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성차별이나 성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0.8%가 "논의를 통해서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대답이 흥미로우면서도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논의를 통해서 함께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한다면, 그 논의는 어디에서 하는 논의인가? 교회 내의 어느 기구에서 논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나올 것이다. 그 논의는 당연히 교회 내의 정책결정기구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 정책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도는 얼마나 되는가? 겨우 11% 밖에 안 된다. 교회에 따라서는 그 보다 더 낮은 비율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결국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성차별이나 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작 자신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거나 결정하는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설교나 예배, 교육의 부분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집단이 얼마만큼 평등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사회나 집단의 '결정기구'(decision making body)와 '결정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에서 양성이 차별 없이 얼마나 공평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89] 물론 설교나 예배, 교육에서 성차별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놓쳐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리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89]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지수 통계자료집* (서울: 기독교대한감리교 출판국, 2006), 1.

생각해 보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가 2007년에 은퇴한 이후로 여성 기획위원회 회원이 한 명도 없다가 올해 2017년에 여성 기획위원이 10년 만에 다시선출되었다.[90]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남녀 차별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의 헌금 순서에서 헌금위원은 남성들은 하지 않고, 여성들만 하고 있다. 안내위원은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같이 하지만 유니폼은 여성들만 착용하고 있다. 특별한 날에 선물을 나눠주는 일도 여성들이 하고 있다. 연합예배나 외부 행사가 있을 때에는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안내를 한다. 남성들은 한복을 입지도 않지만 안내도 하지 않는다. 물론 교통 통제나 주차안내를 남성들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들이 차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면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자신들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차별의 문제에 개선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성경적 순종의 의미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다. 여성들도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불평등하면 불평등하다고 말해야 한다. 본인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고, 불평들 구조를 깨는 일이 될 것이다.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의견'에서 51.4%가 '여성지도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상담과 치유에 필요하다.'(16.6%)고 각각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교회에서

---

[90] 우리 교회는 46 년의 역사에서 단 한 명의 여성 장로를 배출했는데, 2002 년에 취임해서 2007 년에 은퇴를 했다.

전통적으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주된 사역인 '설교와 예배 집행에 적합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2.5%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여성 목회자가 여성지도력 향상이나 상담과 치유에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은 여성목회자를 부담임자나 보조 목회자로서 본 것이지 담임 목회자로 받아들이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남성중심적 가부장주제에 의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반영된 가부장제적 의식으로 보인다.

가부장주의는 남성보다 여성이 열등하고, 가족이나 그룹에서의 대표성은 남자가 가져야 한다는 의식을 강요한다. 그런 가부장제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부지불식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이런 그릇된 의식을 깨는 데서부터 여성들의 의식화 과정이 시작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정신이 실현되는 예수의 평등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91]

끝으로 '교회의 민주화'에 대한 여성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먼저 '교회 민주화의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남녀의 평등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답에 2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남녀결의기구에서 남녀노소의 평등참여'가 22%로 그 다음을 이었다. 남녀의 평등 목회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교회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나 교단의 결정 과정과 기구의 구성

---

[91]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68-69.

그리고 목회에서의 평등한 참여라는 것에는 여성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회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서 79.7%(아주 가능 12.8%, 가능 66.8%)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을 보면, 한국교회 여성들이 교회 내의 민주화 실현에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92] 물론 이런 낙관적인 견해는 분명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견해가 실현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낙관적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낙관적인 견해가 실제로 교회 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까지도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배워서 예수의 정신이 심어지고, 발현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나아야 한다.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강남순은 다음의 네 가지 점을 지적한다. 첫째, 교회 내의 여성들에게 신학적 의식이 미성숙함을 지적한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 등에서 보았듯이, 여성들의 견해가 개인적 차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의와 평등 그리고 억압과 배제와 같은 사회적 관심이 결여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이해 역시 편향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학적 이해의 성숙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는 곧 더 넓은 시야와 관심을 갖게 하고, 더 확장된 신앙과 삶의 영역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교회 내의 여성들의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즉 불평등한 구조와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결기구에서

---

[92] Ibid., 170-71.

배제되는 데도 예배와 교육에서는 평등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교단 내의 여성 연합회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교재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93]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만들고 있는 '양성평등적 교회를 위한 성경공부 교재'의 집필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교회 내의 여성들의 의식전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셋째, 목회자의 의식이 교회 내의 여성들의 의식화와 교회 내에서의 자리 찾기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내에서의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권이 목사에게 있다는 점은 한편으로 큰 약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목회자의 의식의 전환만 이루어진다면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라고 본다. 그러면 목회자들의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개인 간에 차이가 있고, 목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대학에서의 교육일 것이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대학에서 신학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의 교수진들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제대로 된 여성신학을 공부한 여성 교수의 임용도 점차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 이상 남성이 말하는 복음, 남성이 말하는 질서, 남성이 말하는 성경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알아야 한다.[94] 이제는 여성이 말하는 복음, 여성이 말하는 질서, 여성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

[93] Ibid., 171-73.

[94] 강호숙, *여성이 만난 하나님* (파주: 넥서스, 2016), 272.

남성과 여성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여성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성서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단적 차원에서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에 있어서 '여성고용, 참여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95] 실제로 감리교도 여성 총대의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 고용이나 참여 할당제가 단지 구색 맞추기나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목회자의 의식전환뿐만 아니라 교단 내 중요 의결기구의 대표자들의 의식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도 당당하게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까지도 교회 내의 엄존하고 있는 가부장적 잔재인 차별과 배제, 소외와 억압의 구조를 깨뜨리고, 평등과 정의, 참여와 자유의 공동체를 만드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

[95]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73-74.

Chapter IV

양성평등적 교회를 위한 성경공부 교재: 예수가 만난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양성평등적 교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교인들의 의식전환에 있다고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성평등적 교재의 디자인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재의 형식은 크게 네 개의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말씀 열기–마음 열기–생각 열기–맺음말 열기'[96] 예외적으로 'A. 신약성서 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 단원과 'G. 예수와 함께 양성평등적 교회를 지향하며' 단원에서는 '말씀 열기' 없이 곧바로 '마음 열기'로 시작하고, 그 외에 다른 단원들은 네 부분으로 나눈 형식을 따랐다.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네 부분으로 나눈 항목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에 따라 항목의 순서를 자유롭게 바꾸거나 삭제 또는 첨가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순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남녀 교인들의 의식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이 교재가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양성평등적 교회를 이루는 데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A. 신약성서 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상황

〈 마음 열기 〉

다음의 글을 읽으면서 '이 여성이 만약 나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

[96] 한영제 et al., *삶의 가치를 향상 시켜주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 (서울: Book & People 교육국 교재개발실, 2005), 10–15. 본 교재에 실린 '말씀 열기, 마음열기, 생각열기'라는 항목은 각주에 있는 책에서 차용해 왔고, '맺음말 열기'라는 항목만 '맺음말'이라는 단어에 '열기'라는 단어를 붙여서 내가 만들었음을 밝힌다.

읽어보자. 이 여성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다. 당시의 선생이나 남자들은 이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느니 차라리 책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아침기도뿐만 아니라 식사기도도 할 수 없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이 여성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는 예배도 따로 제한된 공간에서만 허락이 됐다. 이 여성은 소리를 내서 무언가를 읽을 수도 없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장애라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선생들은 이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 말을 거는 것이 자신의 품위를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 자칭 현명하다고 자부하는 남자들은 여성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고, 전통을 깨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여겼다. 선생들은 거리에서는 아내와 딸과 누이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여성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닐 것이다. 또한 이 여성은 법정의 증인이 될 수 없었다. 몇몇 사상가들은 여자는 회당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여성은 한 번에 단 한 명만 나갈 수 있었고, 어린 소녀들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 되는 방의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됐다.

이 여성의 이런 상황들은 결혼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여성의 역할은 오직 출산과 양육 밖에 없었다. 이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사별한 남편의 형제들의 보호 아래 살아야 했다. 게다가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여성에게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었다. 이혼의 문제에서도 남자는 이혼증서만 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했지만 이 여성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격언처럼 이런

말들이 떠돌았다. “남자 아이를 둔 여성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여자 아이를 둔 여자에게는 나쁜 일이 된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기뻐하지만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슬퍼한다. 한 남자 아이가 세상에 오면 평화가 세상에 오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한 여자 아이가 세상에 오면 아무 것도 오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고결한 여성까지도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곤 했다. 선생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여자들에게는 4가지 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여자들은 음식에 욕심을 내고, 험담하는 데 열을 올리고, 게으르고, 질투한다.”[97]

〈 생각열기 〉

1.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 여성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 것 같은가?

2.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연상되는 시대나 상황이나 지역이 있는가?

3. 여러분이 만약 위에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저항하겠는가? 아니면 운명으로 받아들여 순순히 순응하겠는가?

4. 만약에 내 딸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나는 딸에게 어떤 말을 해 주겠는가? 그리고 만약 변화를 원한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고, 어떤 시도를 해 보겠는가?

〈 맺음말 열기 〉

---

[97] Leonard Swidler, “Jesus Was a Feminist.” in *Catholic World*, 177-83.

위에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 보았는가? 이 이야기는 비참한 여성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수 당시의 여성들의 지위와 상황에 관한 이야기다. 비록 2천 년이라는 큰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 받고, 소외 되고, 배제되며 억압 받는 여성들의 현실은 지금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시간의 간격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예수 당시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황을 보면, 이것은 마치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조선시대의 엄격한 유교 집안이나 사회관습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마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시대와 장소만 다른 뿐, 예수 당시의 유대사회와 유교화 된 한국사회가 마치 서로 짜여진 각본대로 연출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교와 유교는 종교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남성중심주의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 남성중심주의가 여성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배제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여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진 분이 있다. 그가 바로 예수다. 그는 주방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며 칭찬했다. 그는 여성들에게도 기꺼이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유대 여성뿐만 아니라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과도 기꺼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남편이 여섯 명이 있는 것도 문제 삼지 않았다. 예수는 사회적 조건이나 관습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중심을 보았다. 그리고 여성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여성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험담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차별하지도 않았다. 예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여성을 대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금했다. 그러고 보니 왜 그토록 여성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 하다. 그리고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최초의 증인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또한 알만 하다.

이제 알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남자들이 전하는 복음, 남자들이 말하는 질서, 남자들이 해석하는 성서, 남자들이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가 전한 복음, 예수가 말한 질서, 예수가 풀어준 메시지, 예수가 기대하는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를 만나 보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만나보자. 단순히 성경 속의 여성들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여성들과 나와의 자기 동일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보자. 내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되어보자.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어 보는 것도 좋다.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되어 보기도 하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인 여인이 되면 어떤가? 남편을 여섯 명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이 된 들 무엇이 두려운가?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떤 사회적 굴레나 외형적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될 테니 말이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살펴 보자.

혹시 성평등적 교재라고 하니 미리 겁부터 나는가? 이것은 공부가 아니다. 이것은 만남이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예수는 이미 우리와 만날 준비를 마쳤다. 우리가 용기를 내면 된다. 자, 이제 문을 열어 첫 걸음을 내디뎌 보자. 그 첫걸음이 우리를 새로운 만남의 세계로 안내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B. 마지막 희망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

〈 본문열기 〉

(막 5:25-34, 개정)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 마음 열기 〉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포로들 사이에 팽배한 극단적 절망이란 질병은 자포자기 병이었다.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 막사 구석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서 이틀도 못 넘기고 죽어갔다. 6·25전쟁 직후 미국의 윌리엄 E 메이어 박사가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1000여명의 미군들로부터 수집한 증언이다. 여기서 언급된 '자포자기병'은 후에 '미라스무스'(mirasmus)란 병으로 정의됐다. 저항력과 인내심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 병으로 당시 미군 포로 38%가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메이어 박사에 따르면 미군이 수용됐던 북한군 포로수용소는 전시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비해 신체적 학대는 적은 편이었지만 많은 포로가 수용소에서 죽어나갔다. 철조망 안에 갇히지도, 무장한 적군의 감시를 받지도 않았지만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북한군이 사용했던 극단적이고 끔찍한 심리전술 때문이었다. 규칙을 위반한 동료를 밀고할 때마다 보상으로 담배를 줌으로써 밀고를 부추겼다. 그리고 규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그 규칙 위반자도 수용소 측에 이미 포섭돼 있던 것처럼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 서로 의심하게 했다.

또 자아비판을 통해 10-12명의 포로를 모아 자신이 했던 모든 나쁜 짓과 해야했지만 못했던 좋은 일들을 동료들에게 고백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포로들 사이에 신뢰, 존중, 관심, 포용력의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내 긍정적인 마음을 빼앗아갔다. 고향에서 날아온 애정이 담긴 편지는 전해주지 않았지만 친척 중 누군가가 죽었다거나 남편을 기다

리길 포기한 아내가 재혼을 결심했다는 부정적인 편지들은 곧바로 전달됐다. 포로들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신과 국가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상실해버렸다.[98]

이와 같이 우리도 미군 포로들처럼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립 상태에 놓일 때가 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만들어낸 공포심이다. 승진에서 누락된 후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대입시험 낙방과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절망한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할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미래이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정신적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희망이 아닐까? 희망은 미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희망이란 것을 잊지 말자.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꼭 잡고 근심의 끈을 놓으라고 말한다. (벧전 5:7, 개정)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온통 사방이 절망뿐인 한 여인이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포자기병 곧 미라스무스 병에 걸려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를 여인이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 말씀 열기 〉

---

[98] Tom Rath and Donald O. Clifton, *How Full Is Your Bucket?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trans. 노형규 (서울: 해냄출판사, 2005), 18-20.

1.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여인의 현재 상태나 상황은 어떠한가? (25-26절)

2. 이 여인은 어떤 계기로 예수께 나아가게 된 것인가? (27절)

3. 이 여인이 예수께 다가가는데 어떤 난관이 있었는가? (27절, 31절 참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의 뒤쪽으로 다가간 것은 단지 무리가 예수를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인가?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보자.

4. 이 여인은 예수께로 다가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27절)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28절)

5.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29절)

6. 예수는 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는가? (30절)

7. 예수의 물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31절)

8. 예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보시려고 둘러보았을 때,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32-33절) 그리고 예수는 이미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알았는데, 왜 굳이 그 여인이 반응하기를 기다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자.

9.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는 어떤 말씀을 했는가? (34절)

〈 맺음말 열기 〉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 속에 보면 굵은 동아줄과 썩은 동아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착한 오누이에게는 하늘이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고, 오누이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게는 썩은 동아줄을 내려준다는 이야기다. 세상은 사람이 만든 끈을 우리에게 희망의 끈이니 잡으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끈은 희망의 끈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썩은 동아줄일 뿐이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당장은 희망의 끈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희망의 끈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 절망적인 세상에 남아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희망의 끈은 오직 예수 밖에 없다. 결국 혈루병 앓던 여인이 붙잡은 것은 예수의 옷자락이 아니라 희망의 끈이자 구원의 끈이었던 것이다. 이 여인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끈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우리도 예수라는 영원한 희망의 끈을 제대로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희망의 끈인 줄 알고 잡고 있지만 썩은 동아줄과 같은 절망의 끈을 붙잡은 채 안도하며 만족해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끈이 되는 예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 생각 열기 〉

1.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께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2. 신앙과 의학의 관계에 대해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가? 신앙과 의학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자.

3.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다. 여러분에게 있어

마지막 희망의 끈은 무엇인가? 예수인가? 만약 예수를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은 무엇인가?

4.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보는가?

5. 이 여인에게 있어 마지막 희망의 끈은 '예수에 대한 소문' 곧 예수가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었다. '희망의 끈'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보니 문뜩 세월호의 '노란 리본'이 떠오른다. '노란 리본'은 한 마디로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염원했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온 국민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란 리본,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은 이제 다 풀어져 버렸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희망의 끈이 된 예수와 절망의 끈이 되어버린 노란 리본, 이 두 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C. 무관심과 차별을 이겨낸 여인

〈 말씀 열기 〉

(마 15:21-28, 개정)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 마음 열기 〉

뇌혈관 파열로 뇌사상태에 빠진 여성이 쌍둥이를 순산한 일이 있다. 1999년 로페즈라는 미국여성은 47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사들은 '회생불가능'을 선언했다. 가족들은 그녀로부터 생명보조장치를 모두 제거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인의 뱃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런데 임신상태인 그녀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다. 뱃속의 새 생명이 움직일 때마다 여인의 의식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뇌사상태의 여인은 의사들의 예상을 초월해 건강한 쌍둥이를 순산했다.

그때부터 여인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다. 강한 모성애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것이다. 뇌사상태에서도 이 여인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강하다. 이 세상에는 가난하거나 나약한 어머니는 없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다. 어머니는 겨자씨만한 희망만 있어도 그것으로 커다란 기쁨을 만들어낸다. 어머니의 사랑은 산소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 사랑

을 깨닫는다.[99] 여기 딸을 위해 포기를 몰랐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 말씀 열기 〉

1. 예수께서는 지금 어느 지역을 떠나 어느 지방으로 들어갔는가? (21절) 그리고 그 지명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그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설명해 보자. (22절)

3. 이 여인의 부르짖는 간청에 예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3절)

4. 예수는 제자들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4절)

5. 이에 여자는 와서 예수께 어떤 행동을 취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가? (25절 a)

6. 그 여인의 말에 예수의 대답은 무엇인가? (25절 b) 그리고 왜 예수는 이 여자에게 그토록 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상황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자.

7. 여인은 예수의 이 굴욕적인 언사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가? (27절) 그리고 이 여인의 대답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는가?

8. 이 여인의 말에 예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8절)

---

[99] 임한창, “어머니는 강하다,” *국민일보*, July 13, 1999, 25.

〈 맺음말 열기 〉

이 이야기의 핵심은 딸이 치료를 받았다는 기적에 있기보다는 이 여인이 예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데 있다. 즉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만큼 컸던 이 여인의 믿음에 있다.[100] 이 여인은 그 모든 굴욕과 비천함을 참고, 자신의 이방인 된 처지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예수의 은혜를 간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참 신앙이란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인정하는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1]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기꺼이 갔던 어머니의 신앙으로 딸이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이야기에서 여인의 인물 됨은 매우 특별하다.

이 여인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조된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앞에서 낮아지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교만 때문에 결국 예수의 말씀도 알아듣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수께 옴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예외적인 은혜였다. 왜냐하면 아직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여인은 겸손함과 열심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앞당겨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102]

끝으로 이 이야기의 무대는 불신의 땅이었다. 불신의 땅에서 가장 놀랄 만한 믿

---

[100] 김영봉, *성서주석 마태복음 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66.

[101] 목회와신학 편집부, ed. *마태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289.

[102] 김영봉, *성서주석 마태복음 Ⅱ*, 67.

음의 기적이 일어났다. 믿음의 땅에서는 예수를 배척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들끓는데, 이 불신의 땅에서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 얼마나 큰 역설인가?[103]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 하지 않던가? 그런데 오늘날 가장 믿음이 강조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부정적 역설'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즉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의 공동체 안에 예수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 어떤 곳보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 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있고, 밖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특별히 교회 안으로 다른 인종의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교인들 중에는 먼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텃새를 부리거나 그들을 차별하고, 교묘하게 억압하기도 한다. 과연 이 서글픈 현실을 교회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여인의 끈질김과 인내와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생각 열기 〉

1.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여전히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는 영호남의 지역갈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역 갈등이나 지역적 편견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가? 또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2. 예전에는 '단일민족'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

103 Ibid., 68-69.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혹시 우리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다름은 틀림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인종적 편견 때문에 틀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자.

3. 가나안 여인은 개라도 좋으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바랬다. 이스라엘의 차고 넘쳐서 떨어지는 은혜와 자비를 구했다. 여기서 우리가 '차고 넘치다.'는 말을 생각해 보자. 우리 안에도 차고 넘쳐서 흐르는 은혜와 자비가 있는가? 교회 안에서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가? 혹시 공장에서 폐수를 몰래 방출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이 부패하면서 발생한 악취가 나는 폐수를 흘려 보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

4. 가나인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장벽들이 있었다. 어떤 장벽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해 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극복해야 할 장벽은 무엇이 있는지 솔직하게 서로 나눠보자.[104]

---

[104] Erwin W. Lutzer and Rebecca Lutzer, *Jesus, Lover of a Woman's Soul 예수가 사랑한 세상의 모든 딸들* (서울: 디모데, 2007), 96-102. 참조

D. 깨어짐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여인

〈 말씀 열기 〉

(마 26:6-13, 개정) 『[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 마음 열기 〉

헨리 나우웬은 자신의 책에 다음과 같은 중세기 어떤 수도사의 얘기를 인용하고 있다. 아주 노련하고 존경 받는 수도사 한 사람이 젊은 수도사의 교육을 막 시작했다. 아직은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는 흙을 만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여보게, 여기 물 좀 붓지"라고 말한다. 그러자 젊은 수도사는 물을 부었다.

그런데 물이 흙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흙이라서 그냥 옆으로 흘러내리고 말았다. 노련한 수도사는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하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망치를 집어 들더니 그 딱딱한 흙덩이를 부수기 시작했다. 그런 후에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어 보라고 했다. 젊은 수도사가 부서져서 부드러워진 그 흙 속에 물을 붓자 그 물이 흙을 응고시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 수도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여기다가 말이야.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나? 우리는 이것을 수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기쁨의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열매와 아름다운 꽃을 위해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깨부수는 순간들이 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105]

위에 '본문열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매우 특별한 이야기다.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예수는 적극적으로 병을 고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분으로 등장하는데 반해서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가 적극적인 이 여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내용이 나온다.[106] 이제 우리 자신이 이 여인이 되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 말씀 열기 〉

1.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6절)

---

[105] 이동원, *이동원 목사의 짧은 이야기 긴 감동 2* (서울: 누가, 2005), 248.

[106] Michael E. Williams and Elaine Mary Wainwright, *The Storyteller's Companion to the Bible (vol. 13) New Testament Women 이야기로 다가가는 성경 13 신약의 여인들*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2), 183-84.

2.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7절)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자.

3.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9절)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자들의 반응과 여러분의 반응을 비교해 보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자.

4. 예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어떤 말씀을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가? (10-11절)

5. 예수는 이 여인이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12절)

6. 예수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선언을 하는가? (13절) 그리고 내가 만약 예수로부터 그런 찬사를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가?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보자.

〈 맺음말 열기 〉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이 여인의 경우에는 사실로 드러났다. 여인은 사랑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행동이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인과 제자들 혹은 예수와 제자들이 대조되어 부각된다. 오직 사랑이 이끄는 대로 행했던 여인과 계산적인 행동을 했던 제자들이 대조된다. 또한 제자들과 예수가 대조된다.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허비되는 것으로만 보았고, 그것을 계기로 자신들의 정의감을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이 여인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책망하신다, 반면에 예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칭찬해 주셨다.[107] 예수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흔히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구를 '마음의 눌림'이라고 표현한다. 이 여인에게도 분명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의 눌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그 값비싼 옥합을 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눌림은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거나 정의 내릴 길이 없다. 살다 보면 종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마음의 눌림 곧 영적 압력이 있다. 꽃들이 뭉개지면 그 향이 더 강하게 나는 법이라고 한다.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이끌리는 마음의 눌림이 있고, 삶의 무게로 인한 마음의 눌림도 있다. 두 가지 모두 는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눌림이 강할수록 더 짙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깨어져야 죄로 파괴된 세상을 이길 수 있다.[108] 내가 먼저 깨어질 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퍼지게 된다. 어찌 보면 예수는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은 잃게 되고, 예수께 드린 것은 그대로 남아 복음과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나를 깨뜨려 사랑으로 부으면 교회는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며 칭송 받게 될 것이다. 사랑으로 깬 옥합은 누군가의 깨진 마음을 봉합하고, 깨어진 세상을 다시 붙여주는 사랑의 접착제가 될 것이다.

---

[107] 김영봉, *성서주석 마태복음 II*, 409-10.

[108] Erwin W. Lutzer and Rebecca Lutzer, *Jesus, Lover of a Woman's Soul 예수가 사랑한 세상의 모든 딸들*, 260-61.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눌림이 있는가? 계산적인 마음을 깨고, 사랑으로 드려보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 예수께 칭찬 받을 낭비다.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운 줄 모르고 낭비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렇게 낭비한 여자를 칭찬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그녀를 사용했다. 깨진 옥합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상징이다.[109] 기적을 낳고자 한다면, 사랑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자, 이제 당신도 자신을 깰 준비가 됐는가?

〈 생각 열기 〉

1.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치라고 보는가? 어느 정도를 사치라고 판단하는가? 또한 여인의 행위를 보며 제자들이 허비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헌신의 행위를 보면서 허비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2. 일부 여성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의 행위가 정말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다고 보는가? 예언자적 행위로 볼 수 있는가? 메시아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께 기름 부음으로 메시아 됨을 인정해 드릴 수 있다고 보는가? 여성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토론해 보자.

3. 나는 교회에서 내 기준에서 함부로 내 뱉은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적은 없는가? 나 자신의 정의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 버리고, 비판한 적은 없는가? 평소의 내 말투는 어떤가?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가? 기쁨을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

[109] Ibid., 250.

4. 이 여인은 매우 비싼 옥합을 깨뜨렸다. 이는 자기 자신을 깨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단순히 옥합을 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깬 것이다. 오늘 나에게 예수 앞에서 깨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야기 해 보자.

5. 흔히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 했던 거룩한 낭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족을 제외하고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했던 거룩한 낭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랑으로 세상을 깨 볼 의향은 있는가? 함께 이야기해 보자.

6.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분개하며 왜 허비하냐고 말했다. 그런데 만약 옥합은 깬 사람이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면,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은가? 혹시 속으로는 허비한다는 생각을 했더라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발설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누가 깼는가의 문제이다. 즉 남자가 깼는가? 아니면 여자가 깼는가의 문제다. 이 이야기 자체에 이미 남녀 차별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자.

E. 돌 대신 용서를 받은 여인

〈 말씀 열기 〉

(요 8:1-11, 개정) 『[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 마음 열기 〉

유기성 목사의 제자훈련 교재 『예수의 사랑 2』에 실린 실화 하나를 소개해 본다. "제가 잘 아는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다.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곳에도 순정은 있는 법이다.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어느 날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기 시작했다.

그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발품을 팔아 교회에 찾아 등록을 했다. 부부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모두 집사가 되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

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그 집사는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이건 당신만 알아야 해. 정말 기막힌 일이야"하며 다른 교인에게 전해준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듯했던 교우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다. 모든 교우가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안타까워했다. 자신들의 불행한 과거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아픔이지 교우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죄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나기에 바빴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다. 젊은 집사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 내가 양 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 떼를 치고 있었다."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110]

만약 이런 일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과연 그 부부를 품어줄

---

[110] 유기성, *예수의 사람 2 인도자용* (서울: 넥서스CROSS, 2009), 194-96.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말씀 열기〉

1. 아침에 성전에서 예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는가? (2-3절)

2.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두고, 그들은 예수께 뭐라고 말했는가? (4-5)

3.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 예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절)

4. 그들이 재촉하며 다그쳐 묻자 예수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7절)

5. 예수께서 그 대답을 하자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8-9절) 그리고 예수는 혼자 남게 된 여인에게 어떤 물음을 던졌는가? (10절)

6. 예수의 물음에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리고 예수는 어떤 말을 해 주었는가? (11절)

〈 맺음말 열기 〉

사람들 곧 남자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 했던 이 여인은 예수의 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반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남자 유대인들은 예수의 비판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논쟁이 끝나고 예수가 성전을 나가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손에는 다시

돌이 쥐어 있었다(59절)[111]. 이 사건으로 이제는 여자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112] 이렇듯 그리스도의 은혜의 심판 앞에 선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부당한 심판권을 그리스도 위에 행사하려 하는 자들은 보다 더 깊은 정죄아래 떨어지고 만다.[113]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여인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렸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정죄하려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와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곧 우리는 예수의 교회로 부름 받은 존재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다. 우리는 그 싸움을 위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드는 대신 돌을 들고 예수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교인들을 겨누는 경우를 심심히 않게 목격하게 된다. 우리 자신이 서로를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돌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교인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돌을 내려놓는 척 한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그 돌을 들어 목사와 교인들을 향해 던진다는 것이다. 예수는 그런 우리들에게 재차 비판을 가한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

[111] (요 8:59, 개정)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112] 김호경, *여자, 성서 밖으로 나오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5.

[113] 목회와신학 편집부, ed. *요한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2), 179.

이재철 목사의 『요한과 더불어』라는 설교집에 나오는 기도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우리는 정의를 외친다. 바른 사회를 주창한다. 그래서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마음껏 정죄하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 간음의 현장, 그 여인의 곁에서 있던 공범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하다. 이제껏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음을 고백한다. 이제부터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 언제나 나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 세상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만이 아는 죄를 손가락으로 그려 지적하심을 놓치지 않는 통찰력을 주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섬기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 시간 나의 손에 들려있는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증오의 돌멩이를 내려놓으니 그 빈 공간을 주님의 사랑과 생명, 진리로 채워 주소서. 더 이상 세상을 허무는 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114]

〈 생각 열기 〉

1.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약점이 사람들 앞에서 노출되었던 적이 있는가? 그때 당신의 기분은 어떠했는가?

2. 여러분은 누군가를 혹시 중세의 마녀사냥처럼, 공개적으로 매몰차게 비난하고 몰아세운 본 적이 있는가?

3. 나는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하게 고백해 보자.

---

[114] 이재철, *요한과 더블어 세 번째 산책* (서울: 홍성사, 2003), 241.

4. 간통죄가 폐지된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를 믿는 여성으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5. 초기 기독교 시기에는 이 본문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상상해 보고, 이야기 해 보자.

6.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예수 당시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미지가 서로 교차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진보니 빨갱이라는 사상적 굴레를 씌워 법 앞에 끌고 와서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정치인들, 친일파의 후예들이 애국지사인양 코스프레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우리도 혹시 교회 안에서 의로운 자인 양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어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돌멩이를 모으고, 그것을 누군가를 향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7. 대한민국 남자들이 내 아내, 내 딸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술집에 가면 어린 여자를 더 찾고 있지는 않는가? 여자가 없이는 술 맛이 안 난다고 떠들어 대지 않는가? 회식 자리에서 가정이 있는 여성 동료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사회 남자들의 이중적 성 윤리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8. 대한민국의 나이든 여성들 특히 시어머니들은 남자들의 외도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중에 시어머니로서 외도하는 아들을 두둔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오죽 못했으면 그렇게 했겠어....", "남자들은 살면

서 한두 번 정도는 다 그래. 기다리면 언젠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거야."라고 말한 적은 없는가? 나 자신이 여성이면서도 다른 여성을 차별하고 정죄한 적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자.

F. 모든 편견을 깨고 제자가 된 여인

〈 말씀 열기 〉

(요 4:3-42, 개정) 『[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31-38절 생략)........[39]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 사마리

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 마음 열기 〉

우리가 오래 전부터 부르던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다.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노래는 요한복음 4장 3-42절에 나오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복음성가이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서 예수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너는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한 구절을 주목하면서 이 여인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한 여인으로, 혹은 결혼생활에 실패한 여인으로 설교해 왔다. 또한 설교자들은 이 여인이 여러 남자를 두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목말라 하다가, 예수가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아맞히자 회개하여 돌아온 여인으로 부각시키곤 한다.[115] 그리고 그런 전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위에 소개한 복음성가마저 열심히 소리 높여 불러왔다.

그런데 혹시 그런 전 이해가 우리에게 선입견을 심어준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런 선입견으로 인해 이 여인을 노래 가사처럼 단지 '헛되고 헛된 것들'만 구한 것으로

---

[115] 최영실, *신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동연, 2012), 46.

판단해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 여인이 자신의 생에 대해 그토록 목말라했던 여인은 아니었을까라는 최소한의 질문조차 이 노래로 인해 생긴 선입견이 차단해 버렸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16] 더 정확하게는 예수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 말씀 열기 〉

1. 예수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통과한 지역은 어디인가? (3-4절)

2.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될 장소는 어디이고, 시간은 몇 시였는가? 그리고 예수는 어디에 있었는가? (5-6절)

3.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서로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정리해 보라. (7-19절)

4.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뒤에 예수께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그리고 예수는 여인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는가? (21-24절)

5. 예수의 예배에 대한 정의를 듣고, 여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는 어떤 대답을 주는가? (25-26절)

---

[116] Ibid., 47.

6. 예수의 대답을 듣고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8-30절, 39절)

7.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함으로 이틀을 머물게 되었고,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이 지게 된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40-42절)

〈 맺음말 열기 〉

오래 전 앨라배마의 한 젊은 교사가 펌프에서 흘러나오는 물 밑에서 장님이자 귀머거리인 한 어린 소녀의 손을 붙잡고, 손으로 '물'이라는 단어를 읽게 해 주었다.[117] 그 교사의 이름은 앤 설리반(Anne Sullivan)이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손은 바로 헬렌 켈러(Helen Keller)의 손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놀랍게도 헬렌 켈러의 동창생들이 50회 동창회에서 래드클리프 대학에 분수를 기증했다. 그 물을 만져 보기 전, 헬렌 켈러는 분수 뒷면에 새겨진 헌사를 직접 읽었다. "'물'이란 단어를 시작으로 촉감을 통해 헬렌 켈러라는 소녀에게 시각과 청각의 세계를 열어준 특별한 교사, 앤 설리반을 기념하며...." 틀림없이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처음 만났던 수가의 우물가로 자주 돌아갔을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사건을 기념하는 비(碑)를 세운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길 것이다. "'물'이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당신을 통해 사마리아 여자에게 삶의 목적과 용서의 세

---

[117] Erwin W. Lutzer and Rebecca Lutzer, *Jesus, Lover of a Woman's Soul 예수가 사랑한 세상의 모든 딸들*, 81. '장님', '귀머거리'라는 단어는 책에 번역한 그대로 옮겼다. 요즘 같으면 포괄적 언어인 "시각장애인이자 청각장애인인"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을 것이다. 특별히 "예수가 사랑의 세상의 모든 딸들"이라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의미와 부합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번역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계를 열어준 특별한 교사, 예수를 기념하며....”[118]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는 무엇을 열어주었는가?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우물가는 어디인가? 오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우물가 곁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 보는 것은 어떤가? 예수가 지금의 내 모습을 본다면, 그는 과연 나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각자의 의견을 서로 나눠보자.

〈 생각 열기 〉

1. 여러분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인생이 흘러간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그때 당신의 기분은 어떠했는가?

2.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모습만 보고 판단한 경우가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속단했다가 후에 그 사람의 실제와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던 경험이 있는가? 만약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한 번 이야기해 보자.

3.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의 말에 “남편이 있으니 잠깐 기다리면, 불러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다음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대화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어떤 식의 대화가 이어졌을 것 같은가? 만약 중단 됐다면 어떤 식으로 중단이 되었겠는가? 그리고 그 중단된 이유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한 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화의 내용을 재구

---

[118] Erwin W. Lutzer and Rebecca Lutzer, *Jesus, Lover of a Woman's Soul 예수가 사랑한 세상의 모든 딸들*, 82-83.

성해 보자.

4.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5번 이혼하고, 지금 남자와도 정식 결혼이 아닌 동거관계에 있는 여성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은가? 그런 여성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5.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곤 한다. 이제는 예배가 장소적 의미를 강조하는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인식하여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를 더 강조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고 본다. 여러분은 예배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장소의 의미’ 그리고 ‘영과 진리로’의 의미와 각각 연결시켜서 이야기 해 보자.

6.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눴던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등등 이런 교단들은 없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 예수는 이런 교단들의 분파를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결국 인간들의 독선과 차별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요즘 시대에 과연 교단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는 어떤 교단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 해 보자.

7. ‘사마리아’라는 명칭은 그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역사적, 종교적, 인종적으로 차별 받고, 소외되고, 배제 된 지역과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누가 과연 사마리아 사람인가? 혹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차별하고, 종교적으로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혹시 나 자신에게 있는 '사마리아'는 어디이고, 누구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말해 보자.

8. 예수는 '사마리아'라는 지도에 나오는 경계선을 넘어갔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선도 넘었고, 역사적 간극의 선도 넘었고, 남자와 여자라는 선도 넘었고, 종교적 분리의 선도 넘었다. 그리고 편견과 차별과 오해의 선도 넘었다. 결국 예수는 선을 넘은 분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땅에 금을 그어놓고 하는 놀이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선을 넘거나 밟으면 죽는 것이 놀이의 규칙이다. 예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 선을 넘거나 밟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는 보란 듯이 그 선을 밟았고, 넘었다. 오늘 우리 안에 그어 놓고 있는 편견과 차별과 오해의 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세대 간 갈등, 지역적 갈등, 빈부의 갈등, 학벌의 갈등, 인종적 갈등(다문화 가정) 그리고 남북을 갈라놓고 있는 휴전선 등등 여러분 스스로가 그어 놓고 있는 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혹시 다른 사람들은 갈라놓거나 나 자신을 갈라놓는 선이 있다면, 그 선은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해 보자.

9.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봐 왔던 것과는 달리 역사와 종교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누군가 특히 남자들이 정해 놓은 전통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예수에게도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똑똑한 여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한 번 해 보자. 혹시 이 여인이 너무 똑똑하고, 관습과 전통에 대해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때문에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한번 상상해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G. 예수와 함께 양성평등적 교회를 지향하며

〈 마음 열기 〉

들꽃향린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도 독특한 교회다. 향린교회에서 강남향린교회로, 강남향린교회에서 다시 들꽃향린교회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대형교회라서 지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다. 향린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세워진 강남향린교회(1993년)에서 또다시 11년 만에 '분가선교'를 결정, 창립된 교회가 들꽃향린교회다. 향린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강남향린교회를 담임했던 김경호 목사는 지난 2004년 11월, 새로 창립된 들꽃향린교회 담임자가 됐다. 그리고 4년여, 들꽃향린교회는 자신들의 〈정관〉에 따라 '공동체협력선교위원회', '지역사회선교위원회', '통일·인권선교위원회' 같은 특별한 위원회들과 운영위원회, 월례회에서 교우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담임자는 예배와 성서학당, 상담만 맡는 독특한 교회, 나아가 양성평등 실천에서 남다른 교회로 향기를 내뿜고 있다.

그러면 들꽃향린교회의 양성평등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 김경호 목사는 강남향린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성차별의 원인이 바로 먹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먹거리 때문에 여성들이 주방에 있어야 했던 것이다. 지도력이 탁월한 여성들도 교회 주방에 배정되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지도력이 어떠하든 회의에 들어가 위원장, 부장의 역

할을 했다. 김 목사는 이런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주방으로 남성들을 같이 밀어 넣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교회 선교방향에 "차별이 없는 교회 – 여성목회자나 여성장로의 안수, 여성의 예배의식 참여 등 남녀의 성차별은 물론,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갑니다."라는 항목을 넣고 여러 시도를 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부부이름의 순서 바꾸기였다. 가나다순으로 이름을 적을 때, 남편 이름 순서에 맞추던 것을 "여성이름/남성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예배순서뿐 아니라 설교 역시 평신도와 목회자,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없이 공유했다. 그래도 여전히 주방 일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차별이 없는 교회"라면서 왜 아직도 주방을 여성들에게만 맡기냐는 것이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왜 우리만 주방을 맡아야 하는가?" 신도들은 '주방의 양성평등'을 주제로 임시 공동의회(감리회의 당회)를 열었다. 심각한 공동의회가 4-5차례. 가장 넘기 힘들었던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이나 이론에 동의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해결책'이 문제였다. 남성들은 이렇게 제안했다. "차라리 주일 낮에 금식을 하자!" 속내는 밥도, 반찬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 갑갑하다는 거였다. 여성들 중에서도 어르신들은 이렇게 제안했다. "차라리 내가 1년 내내 당번을 하겠다." 심지어 주방 맡을 이를 채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기나긴 토론 끝에 신도들과 함께 찾아낸 해결책은 "아빠가 차리는 밥상" 프로그램이었다. 주방 일을 배우고 익숙해지기 위해 아빠들이 밥상을 차려 아내와 아이들을 초청하는 품평회를 먼저 열기로 한 것이다. 남편들이 하도 귀찮게 물어대니 아내들도 같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남성들

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여기에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눠먹는 기쁨이 더해지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조를 짜서 주방 일을 맡게 됐다.

그렇게 해서 가장 힘들었던 주방 평등을 이루고 나니 교회의 부서장이나 의사결정구조에도 여성의 참여가 자연스레 이뤄졌다. 주방 일을 책임지는 부서가 봉사부인데, 그때까지는 의례 여성의 몫이었지만 이 역시 남성이 맡기도 했다고 한다. 강남향린교회에서 시작된 양성평등의 전통은 들꽃향린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년간은 남성이 봉사부장이었고, 올해는 다시 여성이 맡고 있단다. 교인 15명에 1명꼴로 선출되는 2년 임기의 운영위원도 남녀의 구별 없이 '인물에 따라서' 선출되는데, 지난 회기엔 여성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교회 살림과 회의, 부서간의 조정을 모두 책임지는데, 심지어 회의 소집권도 담임목사에게 있지 않고 운영위원장에게 있다고 한다.

들꽃향린에서 양성평등 실천으로 자랑할 것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신도들이 '면 생리대 만들기'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청년들도, 젊은 부부도 공동작업으로 면 생리대를 만들면서 여성과 남성의 다른 경험과 양성평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삶터, 곧 직장에서 제대로 써먹는 이도 생겼다. 중학교 교사인 신도가 학생들의 지도력 훈련 때 남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착용해보도록 한 것이다. 이틀 동안 생리대를 하고 다녀본 남학생들은 "이렇게 불편할 줄은 전혀 몰랐다. 생리 중인 여학생을 놀려주곤 했는데 앞으론 그러지 않겠다."며 반성했다. 수련회 때도 남학생들이 음식을 만들고 여학생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역할 바꿔 하기를 했다. 학생들은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차별, 벽이 있었음을 알았다며 좋은 경험이 됐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이제껏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서 새로운 화해와 소통을 이루는 것을 김 목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들꽃의 영성수련은 늘 새롭다. 김 목사는 어린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를 위한 2박3일 영성 수련회에서 남편들이 무거운 물 주머니를 계속 차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아내가 임산부로서 겪은 고충을 경험케 하고 상대의 입장을 몸으로 체험케 하려는 시도였는데, 다들 시간 내기가 어려워 아직은 기획단계라고 한다.

현재 들꽃향린의 신도 성비는 대략 50대 50! 오히려 남성들이 약간 더 많다. 남성들이 다른 교회에서보다 더 구박받는 듯한데도 모두가 마음에 들어 한단다. 김 목사의 설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균형 잡힌 신앙실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80주간에 이르는 '빡센' 성서학당 과정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하면서 본래 성서가 차별이나 불평등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배워서일 듯하다. 단순한 '여성할당제'(gender quota system)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양성평등의 신앙고백, 신앙실천이 이뤄지는 들꽃향린교회의 '복음'이 한국감리교회와 이 사회에 큰 반향으로 울리기를 고대해 본다.[119]

〈 말씀 열기 〉

누가복음 10장 38-45절의 말씀을 '들꽃향린교회'와 연관시켜 보면서 각자 속으로 읽어보자. (눅 10:38-45, 개정) 『[38]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

[119] 최소영, "'차별이 없는 교회'-주방의 양성평등을 이루다," *감리교여성신문*, April 20, 2009. http://mwli.net/xe/7480 (Accessed October 3, 2016).

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생각 열기 〉

1. 마르다는 어떤 일을 했고,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2.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마르다의 일인가? 아니면 마르다의 일인가?

3. 만약 교회에서 내가 마리아의 일보다 마르다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교회에서 마리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마르다가 예수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목사에게 같이 도와줄 것은 요청하는가? 아니면 직접 당사자에게 요청을 하는가?

5. 예수는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칭찬하셨다. 예수가 생각한 좋은 편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편은 일치하는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가를 이야기 해 보자.

6.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 주방 일인가? 아니면 말씀을 배우는 일인가? 다음의 보기 중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를 이야기 해 보자. (ex, 청소/음식 만들기, 행사 준비, 전도, 심방, 찬양대, 교사, 예배기도, 설교, 속회, 친목도모, 기금마련, 사회봉사활동, 환경보존운동, 교회연합운동, 성서연구, 예배사회 등등)[120]

7. 위에 대답을 토대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가?

8. 들꽃향린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가? 만약에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면, 어떤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반대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일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과연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장애물이 된다고 보는가?

9. 그렇다면 예수는 주방의 양성평등을 원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주방의 양성불평등을 원하신다고 보는가?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 보자.

〈 맺음말 열기 〉

강남순는 자신의 책 『정의를 위하여』에서 '왜 사유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글에서 다음과 역설한다.

---

[12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61. 〈표 5〉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NCCK) 주관으로 교회여성들이 '95 희년통일교회협의회'를 조직하면서 그 협의회 산하에 있는 '여남평등교회공동체위원회'가 한국교회 여남평등 공동체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항목 중에서 '여성들의 교회활동과 사회활동 분야에 관한 내용에서 문항을 가져왔다.

>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포기할수록 이 통제사회가 원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맞추기 위하여 더욱 애쓰게 되며, 그것은 일종의 편안한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아렌트의 의미심장한 지적과도 같이, 이러한 사유의 포기야말로 현대사회가 지닌 가장 위험스러운 악의 양태가 될 수 있다. 비판적으로 사유하기는 주어진 현재, 주어진 관습과 편견, 그리고 경쟁과 통제적 제도에 끊임 없이 저항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또한 사유함이란 지금도 무수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이 사회의 언저리에서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을 비로소 '존재하는 존재'로 볼 수 있게 하는 연대의 힘이다. 그래서 사유함이란 현재와의 치열한 씨름이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절실한 갈망이며, 살아있음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는 변혁적 저항이다.[121]

교회 내의 여성들이 비판적 사유 없이 예수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들이 만든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전통이 물려준 관습과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을 인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가장 위험스러운 악을 양산해 내는 공모자가 되는 것임을 여성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남순은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서 '사유함(thinking)', '판단함(judging)', 그리고 '행동함(acting)'은 언제나 깊은 상호연관 속에 있다고 말한다. 즉 사유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바른 판단이 되지 않는 한 행동이 뒤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판적 사유는 사회적 관습·제도·통제적 기제·다양한 편견·규율·선입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편승이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다양한

---

[121]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비판적 저항으로서의 인문학적 성찰* (파주: 동녘, 2016), 38-39.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 '사유 없음'에 관한 내용은 위에 책 36-37 페이지를 참고할 것.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는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비판적 사유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의문을 통해서 나 자신과의 끊임 없는 대화해 가면서 그 의문과 씨름해야 한다. 과거로부터 주어진 개념·규율·관습·제도·전통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물음을 던지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유의 출발인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은밀하게, 티 나지 않게, 눈치 채지 못하도록 자행되는 노골적인 악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122]

프랑스의 정치가 토크빌의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이 말이 오늘 이 시대에 더 뼈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유함 없이 무조건 1번에 표를 던져주고, 정치인들이 주는 관습과 편견, 경쟁과 통제적 제도에 별 저항 없이 아니 도리어 너무도 순순히 응했던 결과가 아닌가? 색깔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그들의 술수에 놀아난 결과가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비판적 사유 없는 어른들의 책임이고, 또한 정작 투표일에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놀러 갔다 와서는 나온 결과에만 분노를 반복했던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의 결과가 아닌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무관심은 무기력이고, 기생적인 것이며, 비겁함일뿐 진정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증오한다. 무관심은 역사의 죽어 있는 납덩이다. 무관심은 혁신자에게는 납으로 만들어진 공과 같으며, 때로는 매우 빛나는 열정들을 수그러들게 하는 무기력한 물질에

[122]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비판적 저항으로서의 인문학적 성찰*, 37-38.

불과하다."[123] 국민으로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우리는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각자의 납덩이를 목에 걸고 물 속으로 침몰했는지도 모른다. 세월호의 침몰로 죽은 어린 영혼들도 불행했지만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호(號)에서 침몰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행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정치인들은 지금도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은 빠져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그런 광경을 반복해서 목도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무관심의 납덩이를 던져버리고, 비판적 사유를 통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여성들도 교회가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물려주었던 관습과 관행대로 순순히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내가 따르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예수의 정신인가?'를 끊임없이 물음을 던질 것인가? 그 역시 전적으로 여성들의 몫이다. 목사가 어느 정도 안내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오롯이 여성들의 선택이다. 혹시 예수도 무관심한 여성들을 향해 "나는 무관심한 여성들을 증오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문뜩 생각해 본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성들이 해석해 온 전통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예수께 여쭈었다.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123] Antonio Gramsci, *Odio gli indifferenti 나는 무관심을 증오한다*, trans. 김종범 (서울: 바다출판사, 2016), 27-28.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비판적 사유를 통해 예수와 함께 대화를 이어 나갔고, 그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었고, 답을 얻는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해 주고, 마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비판적 사유가 바른 판단을 도출해 냈고, 그 바른 판단을 통해 예수가 기대하는 옳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

우리는 그 동안 그녀에 대해 남편을 여섯 명이나 갈아치운 음탕한 여자로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전통이 가르쳐 준 대로, 목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우리는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는 달랐다. 예수는 그녀의 남편이 여섯 명인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도리어 비판적 사유를 통해 날카롭게 질문하는 그 여인을 예수는 귀하게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가 오늘날 교회 내의 여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무분별한 순응일 것인가? 아니면 비판적 사유를 통한 순종일 것인가? 우리는 전통에 의한 차별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작 예수의 정신에 의한 비판적 사유는 왜 차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한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보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대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 보자. 그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Chapter V

결론

지금까지 양성평등적 교회를 위해 왜 성경공부교재가 필요한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서 나는 우선 한국사회 안의 성차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내가 양성평등적 교회를 위한 성경공부교재를 집필하면서 가장 먼저 한국사회 안의 성차별 문제를 살펴본 이유는 교회는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교회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사회에 나가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구성원인 교인들로 인해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회적 영향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문화나 기업 문화와 같은 계급 중심의 사회경험을 통해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향들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양성평등적 제도와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나 양성평등적 기업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차별과 배제, 소외와 억압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평등과 정의, 자유와 참여를 인정하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사회의 가정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에서도 역시 가부장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한국교회 내의 성차별을 말하기 이전에 한국사회의 성차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본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성차별은 한국교회의 성차별로 나타나고, 다시 개 교회의 성차별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개 교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평소에 교회에서 교단이나 연회 또는 지방회의 문제를 자주 언급하곤 한다. 물론 교인들 중에는 왜 우리 교회와 상관 없는 지방회나 연회나 교단의 문제들을 말하는가에 대해 의아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문제의 크기나 심각성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교단의 문제가 곧 연회의 문제이고, 연회의 문제가 곧 지방회의 문제가 되고, 지방회의 문제는 다시 개 교회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총회 대표 구성에서의 남녀 차별은 연회에서의 남녀 차별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지방회에서의 남녀 차별로 드러나고, 또 다시 개 교회에서의 남녀 차별로 나타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교회만 해도 지난 해까지는 기획위원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올 해 2017 년 들어 처음으로 여성 한 명이 기획위원회 회원이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교회 내의 의결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나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당회나 임원회에서는 여성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손을 들고 발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여전히 미흡함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대표 구성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상위 의결기구로 올라갈수록 더 심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교회 내의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부터 깨뜨려야 한다. 나 역시 그랬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페미니즘'하면 드센 여자들의 남성들에 대한 저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운동가'라고 하면 일단은 바른 말 하고, 시끄럽게 하는 골치 아픈 존재쯤으로 여긴다. 물론 페미니즘을 '남자/여자'라는 도식으로 이해하여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의 구도로 보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에 속한 자들이다. 예수의 정신을 배우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다.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가? 강남순은 그것을 '기독교적 페미니즘' 혹은 '휴머니즘적 페미니즘'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정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남녀를 초월하여 모두 다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로 인해 그 어떤 차별과 배제와 소외와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다.

이런 예수의 정신은 단지 성별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 문화, 계층, 지역 등등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억압하고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곧 예수의 정신이다. 오래 전 레오나드 스위들러가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Jesus was a Feminist)라고 했던 말은 자칫 예수의 정신을 축소화시키는 것이며, 또 다른 오해와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그의 말을 거부한다. 대신에 나는 거기에 덧붙여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말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예수는 기독교적 페미니스트이자 휴머니즘적 페미니스트였다."는 말이다. 바로 이점을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간과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데도 말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 교인의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갔다가 동기 목사를 만나게 됐다. 동기 목사는 사모와 사모의 여동생을 나에게 인사소개를 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동기 목사의 처제가 믿음도 좋아 보이고, 분위기도 있고, 얼굴도 밉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우리 교회의 전도사였다. 나는 속으로 그 여성을 우리 전도사에게 소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저런 질문을 하다가 나이를 물어봤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도 동안인데, 그 여성은 더 동안이었던 모양이다. 동기 목사의 말을 들어보니 그 여성이 전도사보다 6 살이나 연상이었다. 그래서 내가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이야기를 마쳤다.

그 다음날 차를 타고 장지로 이동하는 중에 전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도사에게 동기 목사의 처제를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 권사 두 분이 여자가 6 살 많은 것은 괜찮다고,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하면서 소개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 권사 한 분이 가 이렇게 말했다. "왜 남자는 여자 나이가 어린 것은 되는데, 아니 어릴수록 더 좋아하면서 여자는 남자가 어리면 안 되나요?" 나는 그 여자 권사의 말을 듣는 순간, 양성평등을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여자 권사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남자의 나이가 더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니 도리어 남자는 여자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심은 더 좋아한다. 그런데 왜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남자들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나는 설교를 통해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먼저 예수의 정신을 계승하는 휴머니즘적 페미니스트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던 나였지만 정작 실상은 부지불식 간에 나 역시도 여자는 남자보다 어려야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비록 내가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1-2살 차이는 괜찮고, 6살 차이는 안 되겠다고 말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1-2살은 되는데, 6살 차이는 안 되다는 말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나이 차이 때문에 안 된다면, 다 안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반대로 나이 차이와 상관 없이 된다면, 다 되어야 맞는 것이다. 이처럼 나 자신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양 생각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런 나의 경험을 말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목회자들 특히 남성 목회자들부터 이런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의 정신이 무엇이고, 예수가 추구했던 페미니즘이 무엇이며, 예수의 정신이 어떤 내용과 형태로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그 내용들을 교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페미니즘은 단순한 사상적 흐름에 따른 사회, 문화, 정치적 유행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개인적 선호도와 성향에 따른 주장이나 의도는 더 더욱 아니다.

이것은 곧 예수의 정신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성별, 인종,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평등하다는 정신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페미니즘이자 휴머니즘적 페미니즘인 것이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그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강남순은 '신앙이란 예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정의했다. 그렇다. 예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성중심이며 가부장적인 시각이 아니라 예수의 시선으로 사람을 특별히 여성들을 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서 역시 남성중심적으로 해석되어 왔음을 우리는 이미 잘 인지하고 있다. 이제는 남성이 말하는 복음, 남성이 말하는 질서, 남성이 말하는 성서가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복음, 예수가 말하는 질서, 예수가 말하는 성서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며, 양성평등을 이루는 첩경이 될 것이다.

물론 성평등을 이루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 선교 역사보다 유교의 전래가 훨씬 더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유교는 조선 건국의 이념으로 채택된 종교다. 게다가 조선 중기 이후로 유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 끼친 영향은 자못 심대하다. 다시 말해서 유교의 뿌리 깊은 영향은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그렇지만 아주 깊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것이다. 그 무엇보다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곧 사람들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한 번 박혀버린 사람의 사고다. 이 역시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목회자가 설교를 몇 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목회자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양성평등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현하는 사역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한다. 성경공부교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뿌리 깊게 박힌 유교적 영향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목회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공부교재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먼저 예수의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성들에게도 예수의 정신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남녀 모두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교회는 예수가 지향했던 평등공동체로 거듭나는 일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논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 바로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금 온 나라가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 허탈함과 정신적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연일 매스컴에서 쉬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계속해서 국정농단의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치는 3 류지만 국민들은 1 류임을 촛불집회를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작 내가 우려하는 것은 박근혜 게이트나 3 류 정치만은 아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여성 리더십에 대해 남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여성들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와 북어는 3 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는 옛말들이 다시

공공연히 회자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여자 대통령이 어땠는지 우리 모두 잘 경험했지? 앞으로 여자는 절대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돼!”라는 또 다른 형태의 크고 견고한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게 된다. 나는 앞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여성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시각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처럼, 또 다른 형태의 여성차별이나 여성혐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갖게 된다.

하지만 그런 편견과 선입견마저 깨는 것이 곧 진정한 예수의 정신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틀을 깨고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나는 페미니즘의 시작은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성들 스스로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야 한다.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부당하다고 말해야 한다.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면, 차별받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여성 스스로가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여! 이제라도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라! 아니 자기 목소리를 높여라! 예수가 성서 속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던 것처럼,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다. 이 양성평등 위한 성경공부교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이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한 목소리로 예수의 목소리를 내는 그 날까지 배움과 실천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 국내단행본 〉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비판적 저항으로서의 인문학적 성찰*. 파주: 동녘, 2016.

———.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영성·생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강영한 et al..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강호숙. *여성이 만난 하나님*. 파주: 넥서스, 2016.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 서울: 나무연필, 2016.

곽삼근, 김현미, 손승영, 이소희, and 주은희. *일상의 여성학*. 서울: 박영사, 2005.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지수 통계자료집*. 서울: 기독교대한감리교 출판국, 2006.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

김영봉. *성서주석 마태복음 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김호경. *여자, 성서 밖으로 나오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류인덕. *2009 서울예광교회 요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예광교회, 2009.

목회와신학 편집부. ed. *마태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 *요한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2.

박미해,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서울: 아카넷, 2010.

송인자, *여성과 여성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6.

유기성. *예수의 사람 2 인도자용*. 서울: 넥서스CROSS, 2009.

이남희 et al.. *젠더와 사회: 15개의 시선으로 읽는 여성과 남성*. 파주: 동녁, 2014.

이동원. *이동원 목사의 짧은 이야기 긴 감동 2*. 서울: 누가, 2005.

이재경, 조영미, 민가영, 박홍주, (이박)혜경, and 이은아. *여성학*. 서울: 미래인, 2007.

이재철. *요한과 더불어 세 번째 산책*. 서울: 홍성사, 2003.

전용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16.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2nd ed. 서울: 교양인, 2013.

최영실. *신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동연, 2012.

한영제, 최임선, 임용택, 강연희, and 이경재. *삶의 가치를 향상 시켜주는 구원에 이르는 길*. 서울: Book & People 교육국 교재개발실, 2005.

〈 번역본 〉

Antonio Gramsci. *Odio gli indifferenti 나는 무관심을 증오한다*. Translated by 김종범. 서울: 바다출판사, 2016.
Aristoteles. *Politika 시학*. Translated by 천병희. 파주: 숲, 2009.
Erwin W. Lutzer and Rebecca Lutzer. *Jesus, Lover of a Woman's Soul 예수가 사랑한 세상의 모든 딸들*. Translated by 유정희. 서울: 디모데, 2007.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한국의 유교화 과정*. 서울: 너머북스, 2013.
Max Weber. *Soziologie der herrshaft 지배의 사회학*. Translated by 금종우 and 전남석. 서울: 한길사, 1981.
Michael E. Williams and Elaine Mary Wainwright. *The Storyteller's Companion to the Bible (vol. 13) New Testament Women 이야기로 다가가는 성경 13 신약의 여인들*.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2.
Rosemary Ruether. "기독교는 여성혐오의 입장에 서 있는가?" *여성들을 위한 신학*, Translated by 이우정.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Tom Rath and Donald O. Clifton. *How Full Is Your Bucket?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Translated by 노형규. 서울: 해냄출판사, 2005.

〈 원서 〉
Alison M. Jaggar.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Susex: The Harvester Press, 1983.
Young Iris Marion. "Humanism, Gynocentrism and Feminist Politics"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8, no. 3 1985.
Leonard Swidler. "Jesus Was a Feminist." *Catholic World*. January 1971.

〈 정기간행물 〉
임한창. "어머니는 강하다." *국민일보*, July 13, 1999, 25.
임희숙. "한국교회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1, (2009): 267-87.
최소영. "양성평등한 교회를 향해." *새가정* 54, no. 586 (2007): 30-33.

〈 Website 〉
김창환.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OECD 꼴찌." *시사IN*, August 25, 2016.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766 (Accessed September 12, 2016).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1항 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Accessed Mar. 13, 2017).

네이버 지식백과 "그리스도인 [Christian]." (라이프성경사전, 2006. 8. 15., 생명의말씀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90696&cid=50762&categoryId=51387 (Accessed Nov. 2, 2016).

박미소 and 김성형. "여자를 노린다……그날 나도 강남역에 있었다." *중앙일보*, May 25, 2016.
h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19622985 (Accessed August 28, 2016).

유승찬. "자유를 위협하는 악플의 세력화." *경향신문*, August 28, 20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
6
08282120160 (Accessed September 28, 2016).

위키백과사건. "명절증후군." May 28, 2016.
https://ko.wikipedia.org/wiki/%EB%AA%85%EC%A0%88_%EC%A6%9D%ED%9B%84%EA%B5%B0 (Accessed Nov. 14, 2016).

위키백과사건, "서초동 화장실 살인사건." January 12, 2017.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B4%88%EB%8F%99_%ED%99%94%EC%9E%A5%EC%8B%A4_%EC%82%B4%EC%9D%B8%EC%82%AC%EA%B1%B1% (Accessed Mar. 12, 2017).

위키백과사건, "유리천장." April 7, 2016.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A6%AC_%EC%B2%9C%EC%9E%A5 (Accessed Nov. 6, 2016).

이인창. "'교인수 감소, 교회수 증가' 침체현상 뚜렷 정기총회 자료집 분석, 각 교단 교세통계 지속적 감소." *기독교정보은행(BCI)*, September 29, 2016.
http://nohyongchan.blog.me/220823726700 (Accessed Nov. 5, 2016).

조명신. "신앙이란 예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 OhmyNews, August 16, 20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53169 (Accessed May 3, 2016).

조운. "여성에게만 있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아십니까?." *이코노미뉴스*, April 17, 2016.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5814 (Accessed September 15, 2016).

차유진. "교회 여성 감소 뚜렷." *기독교공보*, August 16, 2016.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1775 (Accessed Nov. 20, 2016).

차유진. "女 리더 많은 교회…교세 감소 적다." *기독교공보*, August 30, 2016.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95 (Accessed Nov. 20, 2016).

차유진. "女 총대 할당제가 필요한 2가지 이유." *기독교공보*, September 23, 2015.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25 (Accessed Nov. 20, 2016).

최기영, "총신대서 강의 박탈당한 강호숙 박사 '여성 목사 안수 위해 기도했다고 강의까지 폐강합니까." *국민일보*, March 16, 20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4422&code=23111111&cp=nv (Accessed October 13, 2016).

최소영. "'차별이 없는 교회'-주방의 양성평등을 이루다." *감리교여성신문*, April 20, 2009. http://mwli.net/xe/7480 (Accessed October 3, 2016).

최승현, "권사님을 '밥하는 엄마'로 고정하지 말라." *뉴스앤조이*, April 28, 2016.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71 (Accessed November 20, 2016).

최예슬, "급할 때만 '여성' 찾는 朴 대통령… 정작 여성정책은 뒷전." *국민일보*, November 28, 20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49386&code=11131100&cp=nv (Accessed November 29, 2016).